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朝鮮日報社

英의驅逐艦保有量增加要請과日米兩國의回答

艦船增加程度는 『自主決定이當然』

日本側의回答에對하야英國은不滿足 具體的數字明示要求

永野海相

【倫敦二十七日發聯合】藤井駐英代理大使는 二十六日 英國外務省에 크레기-次官補를 訪問하고 英國政府의 五月六日附 對日通牒 即 一九三六年末 英國海軍은 驅逐艦保有量을 一九三〇年倫敦條約所定의 十五萬噸보담 四萬噸을 超過한 噸數를 保有하고저 日米兩政府에 向하야 希望을 表明한 同文通牒에 對하야 日本政府의 回答을 口頭로써 通達하고 日英米三國은 各各 一九三〇年 倫敦條約所定量을 超過하야 어느程度의 噸數를 保有하여야할는지를 스스로 決定할것이라고思惟한다 는 旨를 通告하엿다 英國側에서는 右回答으로써 一種의 代案이라고 解釋하야 重大視하고 크레기氏는 藤井代理大使에게 右回答에 滿足할수업다고 告하고 日本이 條約所定量을 超越하야 如何한 量의 驅逐艦及 潛水艦을 保有하고저하는지 具體的數字로써 明示해주기바란다 고 反覆要求하엿다 이에 對하야 藤井代理大使는 本國에 請訓한後 다시 會見하겟다고 約束하엿다 過般의 軍縮會議에서 難礁가된 保有量自主的 決定의 日本主張은 玆에 英國의 要請을 契機로 再次 軍縮交涉의 渦紋의 中心이되어 今後의 日英交涉의 進展은 倫敦外交界의 刮目의 的이 되고잇다。

同條約 第二十一條의 에스카레러條項을 援用하여야 할것이라고 思惟하는바이다 (사진은 스탄加레氏)

原則으론贊成이나 條約違反은不可

倫敦條約에스카레러條項을援用하라 ◇米國政府態度表明

【華盛頓二十七日發同盟】海軍長官代理스탠들레(提督)以下 米國海軍省當局은 國務省의 委囑으로 英國政府의 驅逐艦超過噸數 保有要求覺書에 關하야 檢討를行하고잇던바 二十七日 海軍으로서의 方針을 確立하야 卽時 國務省에 回附하기로되엇다 國務省은 海軍省의 報告에 基하야 다시 回答案을 作成하야 倫敦에 發送할터이다 海軍省報告內容에 關하야 스탠들레長官代理는 二十七日 新聞記者共同會見席上에서 『英國政府의 驅逐艦超過噸數保有要求에 對하야 米國海軍으로서는 原則으로는 反對치 안는다 그러나 條約制限外保有는 꼿까지 嚴格히 條約規定에 依存하야 行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英國政府는 倫敦條約第二十一條의 에스카레러條項을 援用할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當局의 態度를 說明하고 對英回答의 重點을 明白히 하엿다 右에 關하야 海軍當局側의 見解를 綜合하건대 米國政府의 對英回答의 基礎가될 海軍省案의 骨子는 大要 如左하다

一、英國政府가 特히 에스카레라條項을 援用하지안코 條約規定과는 別個로 驅逐艦超過噸數의 保有를 要求하고잇는데 이는 手續上 當然 別個의 協定이 必要하고 倫敦條約有効期限인 今年末까지에 米國上院의 批准을 엇기는 事實上 困難하며 假令 米國政府가 英國政府의 要求에 贊成하더라도 實現은 困難하다

一、但 驅逐艦超過噸數 保有自體에 關하야 米國政府는 原則으로 反對치안는다 다만이는 꼿까지 倫敦條約의 嚴格한 解釋을 基礎로 行하여야 할것이나 따라서 米國政府는

增兵對日抗議文 國府外交部發表

第二次抗議準備中

【南京二十八日同盟】國民政府外交部는 二十七日 中國駐屯軍增駐問題에關하야 對日交涉經過를 公表하고 日本政府에對한 第一次抗議와 이에 對한 日本政府의 回答要旨를 發表하고 다시 近近 第二次對日抗議를 提出할 意向을 表明하엿다 公表內容은 如左하다

國民政府는 日本軍의 要求에 對하야

一、事實上 增駐의 必要가업다

一、日本軍의 增駐는 中國民衆의 感情을 刺戟한다

一、增駐는 廣田前外相의 不脅威、不侵略의 原則에 違反된다는 理由로 그中止를 文書로써 抗議하엿다 그런데 東京駐箚許世英大使의 報告에 依하면 日本政府의 回答中 提示된 主張은

一、北中國不安의 狀態에 鑑하야 日本軍의 任務遂行에 遺憾업기를 期하기爲하야 兵力增加는 絶對必要하다

一、增加는 天津條約에 違反되는바 아니다 增加數는 必要한最少限度로 이는 何等中國을 脅威하고 主權을 侵害하는것이 아니다 라는데잇다 中國의現狀은 何等 不安이업고 또增兵이 中國民衆의 疑惑을 惹起할것은 疑心업는바이므로外交部는 再次 許世英大使에게 對하야外務省과 折衝하야 撤兵交涉하라는 意의 訓電을 發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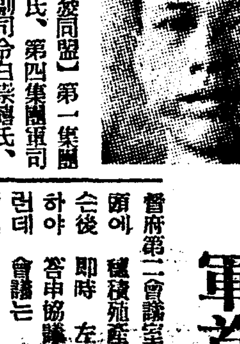
直系軍六萬動員 西南을武力彈壓

飛行機五十臺南昌、衡州에分派 蔣介石氏行動開始

【廣東二十七日發同盟】軍事委員長蔣介石氏는 反蔣巨頭胡漢民氏의 逝去를 契機로 一擧 西南派에 對하야 壓迫手段을 講究하고 直系軍의 武力彈壓의 行動을 取하고잇는 事實이 잇다 特히 福建及 江西兩省에는 直系軍六萬及 胡宗南軍의 一部張學良軍三個師가 增援되는 同時에 飛行機五十臺를南昌、衡州에 分派하고 또 南昌、漢口에 武器彈藥의大量輸送을 行하는等 福建、江西、湖南、雲南、貴州의 五省駐屯의 中央軍으로써 兩廣에 對하야 武力壓迫을 加하려는 氣勢를 示하고잇다 이에 對하야 西南에는 連日軍首腦部會議를 開催하야 對策을 協議한結果 第一、第四集團軍은 各出前線 部署에 就하기로 되엿는데 近來 省境方面의 空氣는 자못險惡을 告하게되엿다 (寫眞은 蔣介石氏)

兩廣共同戰線으로 武力彈壓에對備

連日軍事會議를거듭한結果 軍首腦部意見一致



【廣東二十七日發同盟】第一集團軍總司令陳濟棠氏、第四集團軍司令李宗仁氏 同副司令白崇禧氏、第一集團軍長余漢謀氏等 兩廣首腦部는 連日에 亘하야 軍事會議를 擧行 胡漢民氏逝去後 時局對策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中央의 武力壓迫을 豫想하고 事前에 堅固한 共同防衛陣을 結成하기로되엿다 目下東部及北部省境에 向하야 軍隊移動이 活潑을呈하고 軍事會議를마친 各軍長師長旅長은 一齊히 現地에向하고 이와同時에 前線部隊의家族은 廣東에 引揚을 開始하엿다 陳濟棠氏는 一旦軍師長을更迭하야 腹心者를 當任케하는一方 軍의改善擴張을 急히하고잇다 (寫眞은 陳濟棠氏)

胡宗南軍 … 晉府第二會議室에서 開催하고 政府 … 訓示가잇슨後 即時 左의 諮問事項에 關하야 答申協議를 開始하엿다 그런데 會議는 二十九日까지 續行될터이다

一、昭和十一年度決定事業項目의 選定方針과 그實行計畫에 考究를 施한事項

二、從來 實施事業의 成績이水產業者에 直接 效果를 及한 具體的事實과實際化에至한經過

上海水兵射殺犯 突然犯行을否定

【上海二十七日發同盟】日本水兵射殺事件公判은 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 四時까지 特別第一法院에서 열엿는데 葉海晴은 去二十二日 第의 自白에 基하야 實地檢證까지 하엿슴에도 不拘하고 當日 法廷에서는 從來의 供述을 飜覆하야 犯行을 否定하엿다 次回는 六月二日 開廷될터이다

諾威新公使 信任狀捧呈

【東京電話同盟】着任한 諾威國特命全權公使玉·王司氏의 信任狀捧呈式은 二十八日 擧行되엇다 同公使는 宮內省에서 보낸 自動車

水產試驗場長會議

總督府及 各道水產試驗場長會議는 去二十五日부터 開催中인各道水產主任官會議終了에 繼續하야 二十八日午前八時半부터 總

特別議會終了로 新政策樹立에邁進

八九月까지實現乎?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도 終了하엿스므로 政府는 前者聲明에따라 新政策政綱의 具體化에邁進하기로 되엿는데 新政策의內容에 關해서는 꼿까지 實行可能性을 主로하고 豫算案件하지안는者는 新規着手하나 豫算을要件하는者는 多少 遲延되더라도 明年度豫算에 計上하야 可及的 今冬의 通常議會에 提出할 方針이다 그리고 新政策樹立에 當해서는 政府는 特히今議會中 各閣僚及 各省 政府間에 答辯한 各種의 言明을 尊重하고 이에 基하야 內閣調査局을 中心으로 各省이 協力하야 新政策의 具體的內容을 審議立案케할 方針을 取하기로 決定하엿다 따라서 調査局의 調査機能을 可及的 擴充하야 新政策樹立에 遺憾이 업도록 廣田首相自身이 이를 督勵할意向인데 新政策의 具體的內容의 輪廓이 決定되는것은 現在로서 보면 일느라도 八、九月頃이될 것으로 보고잇다

鐵道、電信破壞等 種族抗爭最高峰

英駐屯軍事態收拾困難으로 警備軍增援을要請

【예루살렘二十七日發同盟】亞剌比亞人 猶太人兩種族鬪爭에 端을 發한 不安狀態는 이二十四時間內에 異常한 發展을 示하야 二十七日 國內到處에 亞剌比亞人叛徒의 襲擊을 惹起하엿는데 各地의 情勢로 高等辨務官워크아트氏는 예루살렘駐屯軍司令部에 對하야 增援을 要請하엿는데 電話는 亞剌比亞人叛徒때문에 到處에서 切斷되어잇스므로 英國官憲의 손으로 不能하고 無電에 依할밧게업서 예루살렘、하이파間에는 急增中인 軍隊가 途中에서 後方으로부터 射擊을밧고 또 列車의 襲擊事件도 續出하야 鐵道警備軍은 全혀 取할方策이 업는 現狀이다

埃及駐屯軍 救援隊急派

【카이로二十七日發同盟】예루살렘高等辨務官으로부터의 增援要請에 對하야 埃及駐屯軍에서는 二十七日 二十七寨의小型탕크隊를 包含한 混合部隊를 急遽編成하야 即日하이파에向하야 急派하엿다

地中海主力艦 하이파港에急航

【예루살렘二十七日發同盟】英國地中海艦隊司令長官다도레파운드大將이 座乘한 主力艦 … 二十七日 하이파로 向하야 拔錨하엿다 右는 亞剌比亞人暴徒의 騷擾에 依하야 야파로부터 撤歸한 英國居留民保護에 當하고 萬一의 事態에 備하기爲함이다

埃及市民大會

아라비아人援助決定

【카이로二十七日發同盟】카이로에서 二十七日 市民大會가 開催되어 팔레스타인問題를 討議한 結果 팔레스타인援助委員會를 結成하야 席上에서 左의 三項을 決議하엿다

一、팔레스타인英國委任統治領政府가 取한 彈壓準備에 對하야 抗議를 提出할것

二、팔레스타인居留 亞剌比亞人의 動靜을 支援할것

三、팔레스타인의 現狀調査를 爲하야 委員團을 派遣할것

日本政府回答과 스海軍長官代理談

【華盛頓廿七日發同盟】倫敦駐箚藤井代理大使가 廿六日 英國政府의 覺書에 對한 日本政府의 回答을 通達하고 「超過艦艇保有에 關하야 日本政府는 態度를 留保한다」는 旨를 明白히하엿다는 報道에 關해서는 廿七日 海軍省新聞記者團共同會見席上에서 遂히 質問이 잇섯는데 海軍長官代理스탠들레提督은 그 批評을 避하고 如左히 말하엿다

日本政府의 對英回答에 對해서는 何等 公表할수업다 따라서 무엇이라 批評할수업다 但 海軍方面의 意向으로 말하면 日本이 英國同樣의 要求를 提議하면 米國政府는 對英回答과 同趣旨에 基하야 꼿까지 條約條文에 依한 超過保有로서 이에 同意를 與하고 따라서 倫敦條約第二十一條의 에스카레러條項의 採用을 當然한 結論으로 思考하겟다는 旨를 主張할것으로 解釋된다

伊의 팔레스타인騷擾策動說로 聯盟理事會를압두고 英國朝野에 膨脹

金融制裁繼續論

【倫敦二十七日發同盟】六月十六日의 聯盟特別理事會를압두고 英國政府는 對伊制裁案善後策에 關하야 여러가지 協議를 遂하고 잇는中인데 팔레스타인騷擾가 最近 極度로 惡化하고잇는 實情에 徵하야 伊太利政府는 公然 그海外發展策을 强行할것은 疑心할 餘地가업고 一部에는 亞剌比亞騷擾의 背後에는 伊太利政府의 손이 뻐치고잇다는 等等의 風說도잇서 保守黨方面의 對伊制裁强化論은 漸次 有力化할 形勢에잇고 政府部內에서도 佛國政府와 共同金融制裁를 斷行繼續할것이라는 意向이 强하야 來聯盟理事會의 政府代表의 態度는 注目되고잇는데 右에 關하여 英國政府의 意向이라고 解釋되는바는 如左하다

一、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經營第二段의 工作으로 同國의 資源開發、行政組織確立의 必要에 切迫되고잇는데 이에는 英佛兩國의 資本이 絶對로 必要하다

一、따라서 伊太利政府에 對한 有効한 制裁는 金融制裁이므로 英國政府는 꼿까지 金融制裁繼續을 主張하여야 할것이다 이야말로 伊太利政府今後의 東阿政策의 死命을 制하는것이다

一、中南米諸國이 伊太利의 特殊經濟關係로 해서 結局 對伊制裁撤回行動을 取할것은 不得已한일이나 此等諸國의 聯盟脫退는 即時重大影響을 及할것이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併合不承認時 斷乎聯盟脫退

【羅馬二十七日發同盟】來六月十五日부터 쥬네브에서 開催될聯盟特別理事會는 聯盟各國의 對伊制裁善後問題를 第一議題로提供할터인데 伊太利政府는 聯盟의 制限案이 依然 繼續되고 에디오피아併合事實이 承認되지안는境遇에는 斷乎 聯盟을 脫退할 意向이라고 傳하야 各國間의 對伊制裁强化論의 擡頭와함께 그推移는 자못注目되고잇는데 右에 關하야 二十七日 伊太利政府側은 如左히 言明하엿다

뭇솔리니首相은 一、九三四年 파시스트大黨評議會當時에 이미그 決議에 基하야 獨自의 判斷으로써 適宜 伊太利政府의 國際聯盟脫退를 決定할權限을 賦與바닷다 따라서 萬若 聯盟理事會가 伊太利政府의方針과 背馳될境遇에는即時 聯盟脫退를 決定할 自由를가젓다 但 伊太利政府로서는六月十五日 聯盟理事會開會까지는 聯盟脫退를斷行치안코 歐洲合同 特히 英國政府의態度如何로 重大關心을 拂할意向이라고 解釋된다 今後英國政府가取할 方針을 伊太利政府側은

一、現狀維持를 圖하고 今後도 制裁案의 貫徹에 邁進할것

一、國際聯盟을 擴充하고「光榮의孤立」의 傳統策에 復歸할것

一、歐洲大陸問題에 關與를 回避하고 大規模의 集團的政策을 確立할것

以上 三項目을 考慮하야 對策을 接衝中이라고 解釋되는데 이 뭇솔리니首相은 駐英大使그란디氏를 通하야 英國政府에 對하야 制裁規定인 聯盟規約第十六條의 削除를 條件으로 英國政府와 歐洲各國과 協調하야 歐洲時局의 安定策에 協力할 意思가잇다는 旨를 通達하엿다고 傳하다

八面鋒

◇英國政府가 對伊制裁撤去에 同意한다는 條件에 曰── 伊國이 에디오피아를 委任統治領이라는 原則下에 統治하면조타고。

◇聯盟制裁를 千里長城이라고 밋다가 아는 英國의 迷夢도 可笑어니와 制裁의 實効를 喪失한 뒤에 撤去를 云云함은 政治的良心을 喪失한노릇。

◇NRA의 法的敗北을 契機로 米國全產業界에 罷業의 旋風이 大起。

◇產業資本家가 拍手歡呼할지부터 今日의結果는 豫想되든일。

◇今秋大統領選擧에 루氏가再選만된다하면 法案의 復興으로 한幕 벌어질形勢。

日蘇漁業條約 効力延長議定書公布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 莫斯科에서 調印된 日蘇漁業條約効力延長議定書는 上奏御裁可를 得하야 二十八日公布되엇다

昭和十一年度 追加豫算公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第六十九特別議會의 協贊을 어든 昭和十一年度追加豫算을 公布實施하엿다 即

一、昭和十一年度 歲入歲出總豫算追加(第一號)

一、昭和十一年度 歲入歲出總豫算追加(第二號)

一、昭和十一年度 歲入歲出總豫算追加(第三號)

一、昭和十一年度 各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追加(第一號)

一、昭和十一年度各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追加(第二號)

一、豫算外 國庫의 負擔이될 契約을 要하는件(一)

一、豫算外 國庫의 負擔이될 契約을 要하는件(二)

鐵道省疑獄事件 第二段活動開始

平井工務局長收容

【東京電話同盟】東京府의 脫稅疑獄으로부터 飛火한 鐵道省疑獄은 二十八日 드듸어 그頂點에 達하엿다 去二十五日 前鐵道省勅任技師 現橫濱市土木局長太田明治氏를 瀆職罪로 起訴하고 東京地方檢事局은 다시 第二段의 活動을 開始하야 二十八日午前八時 鐵道省工務局長工學博士平井喜久松氏를 荏原區戶越町四九三의 自宅에서 또東京改良事務所長勅任技師 黑田武定氏를 品川區上大崎四의 二四九의 自宅에서 刑事同行으로 東京地方檢事局에 召喚하야 馬場檢事가 取調를 行하는中인데 平井氏는 東京改良事務所長時代 黑田氏는 改良課長時代에 國鐵關係의 一流請負業者로부터 贈賄饗應에엇어 現金 又는 秋夕歲暮의 名儀로 多額의 金品을 收賄하고잇던 關係에 關하야 便宜를 與하고잇던 嫌疑는 贈賄側의 供述에依하야 明白하다 平井氏가 政府委員이던 關係上 議會完了를 기다려 召喚하게되엿스므로 兩氏는 今夕 强制處分에 附하야 市谷刑務所에 收容될터이다 그런데 兩氏와함께 召喚될 豫定이던 東京鐵道局工務課長 古谷晉氏는 벌서 二十七日 京都檢事局에 召喚되어잇슴으로 東京檢事局도 이에 對하야 兩氏를 召喚하게된것이다

人事·集會

▲楊在河氏(忠北參與官)新任人事次二十八日來社

▲ … 氏(保安課事務官)同上

江華純苧麻布 江華産業組合 갑싸고 튼튼한 여름옷감 時價表! … 代金引換 要一疋以上 先金運賃貨主負 擔特別取引契約希望 하시는분은 即爲問議하시옵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金平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卸問屋 名古屋市東區淸水町局前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三二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一番

新品 水兵紺セーラーズボン 二圓三十錢 海軍省拂下品 水兵白本麻製セーラーズボン A品一圓三十錢 B品一圓 本品은海軍의拂下中古品으로新品同樣 …

總黑革水兵短靴 鐵十錢 A品一足二圓十錢 B品一足二圓九十錢 陸軍拂下改造編上靴(茶利革)一足二圓二十錢 海軍陸戰隊用 黑革編上靴 一足二圓五十錢

◉海軍省拂下防水布外套(中古品) 一等品二圓九十錢 ◉鐵道省拂下防水外套 一等品一圓八十錢 ◉海軍拂下水兵短靴 ◉軍隊拂下改造編上靴

甘藷苗 新古洋服靴の大安賣 定價表進呈 …

大景品 SP부라치나반지 眞珠入 … 新雜誌「靑年時代」創刊紀念懸賞 大景品付 자미난 아라내기 (課題) 2 5 8 … 東京·麴町區九段二丁目 靑年時代社

◇……四月八日의 觀燈(南山에서)

初等과 其他敎育에 鄕校財産運用期待

全朝鮮 三百卅二鄕校所有土地價格

忽驚! 七百九十二萬餘圓

총독부 사회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조선 향교(鄕校)재산은 ... 천구백팔십이만 ... 삼백이십이 향교의 ... 재산에 달하는데 전답의 ... 평에 달하고 ... 산림원야에 비하면 ... 사회 사업 ...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토지가격의 등귀에 따라 평가를 ... 착게 ... 구입한 ... 교의 과거 ... 그러고 ... 용할 것이라는 ... 사회교화사업에 ... 교화 ... 는 그 수입을 ... 서부터 일반이 부르지저 오는 터이다

賭博하다 强盜 上告棄却, 死刑

산중에서 도박을 하다가 그 친구 ... 홍천군 ... 면 ... 리 ... 강도 ... 살해하고 ... 홍천 ... 상고 기각 ... 사형(死刑)이 확정되엿다

市內로 編入된 郊外 依然圈外로 取扱

火災保險料에도 不平

경성부 구역확장 실시 이래 ... 종세금의 ... 구역 안에 사는 새 부민은 ... 자못 커가는데 ... 동일하게 ... 영리회사인 화재보험회사들의 무리한 보험료 ... 금 ... 파가고 잇다 한다 ... 불편 ... 만 ... 보험료 ... 편리한 이 ... 상 조건을 까추어잇느냐? 만 ...

女子敎育界의 先驅 "梨花" 五十年記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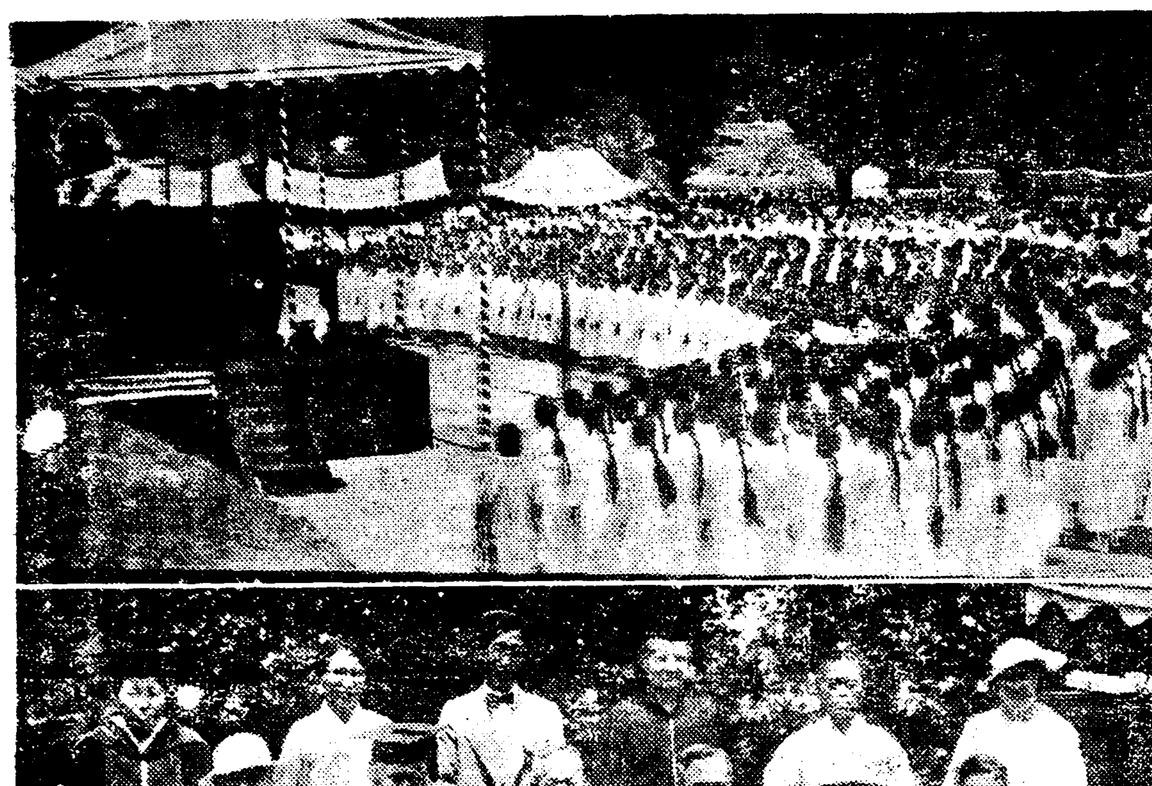
女高普에서 盛大한 式典擧行

繼續하야 展覽會開催

조선여자교육계의 권위인 동시에 원로인 리화(梨花)여자전문학교 리화보육학교 리화여자고등보통학교 리화유치원에서는 ... 그 모체인 리화학당(梨花學堂) 창립 오십주년 기념식을 금 이십팔일 오전 ... 정동 ... 에서 ... 성대히 거행하얏다 ... 주악에 발을 마추어 유치원, 고보, 보육, 전문의 순서로 학생 ... 식사(式辭)와 김활란 박사의 ... 교장 ... 학교 ... 교직원 ...

◇十五周年以上勤續敎職員 ... 이 이십주년 ...

(上)은 記念式場 (下)는 十五年勤續 敎職員十三名



戶別稅와 家屋稅에 意外로 負擔過重

所謂負擔均衡미레劃期的一大增稅로

勤勞民을 울리는 重大結果

... 하나도 고려를 아니하고 ... 경성부 ... 호별세(戶別稅)와 가옥세(家屋稅) ... 부담이 ... 증세 ... 세민계급 ... 가옥세는 ... 부과 ... 세금을 ... 부담하게 되엇다 ...

新義州署의 依賴로 嫌疑者를 또 檢擧

鍾路署金密輸事件과 關連?

시내종로서 사법계에서는 금밀수단이 잡혀 ... 새로운 단서를 어더 ... 시내에서 금은상을 하는 김모(金某)를 그 혐의자로 취조 ... 신의주방면에까지 ... 긴장 활동중이다

父子窃取繼走

예비가 훔친돈을 또 자식이 훔쳐

서울求景왓다 가 잡혀

... 에 사는 리세하(李世夏)의 ... 백십원을 훔처다가 ...

十歲少年窃盜

... 백주에 창고를 파괴하고 ...

平北對岸의 土兵團 鴨綠江上船舶襲擊

廿六日後에벌서四件이連發

日滿兩局에서 非常히緊張

【警務局着電】 최근 ... 압록강을 오르내리는 배를 습격하고 ...

▲이십륙일 오전십일시에 ...

▲이십칠일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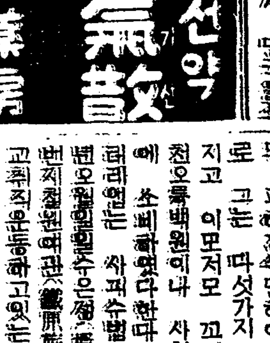
▲이십칠일 ... 다려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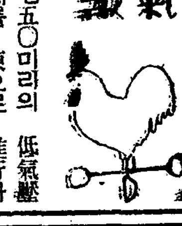
古蹟地帶採鑛은 古蹟保存令으로 禁止

殖産, 學務兩局對立은 解消

就職을 미끼삼고 시골靑年을 專門詐欺

마츰내 本町署員에게被捉





概況 七五○미리의 低氣壓은 北滿洲를 東으로 進行하고 잇고 ... 高氣壓은 東北地方으로부터 北海道에 ...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 明日에 亘하야 ...

昨日最高 二二度九
同 最低 一一度五
今朝最低 一二度七
今日正午 二二度一

運動競技

朝鮮蹴球協會 理事會經過

事業案과 其他決定

朝鮮蹴球協會新任理事會는 廿七日午後六時부터 京城 ... 食堂에서 ...

◇事業計畫案

1、京城府內初等學校蹴球大會 (未決)
2、全朝鮮中等校選手權大會를 七月下旬에 開催할 것 ...
3、朝鮮體育會 綜合競技大會 ...
4、十月末乃至十一月中旬에 京城 ...
5、審判部基礎確立及 審判規定 ...
6、...
7、協會紀章及 役員服裝製作에 關한 件
8、今春三月十七日에 擧行한 ...

◇事務分擔
▲庶務一般及會計 ... ▲審判及技術 ... ▲計畫及宣傳部 ...

朝鐵對滿鐵庭球戰

第六回全朝鮮籠球 各部委員會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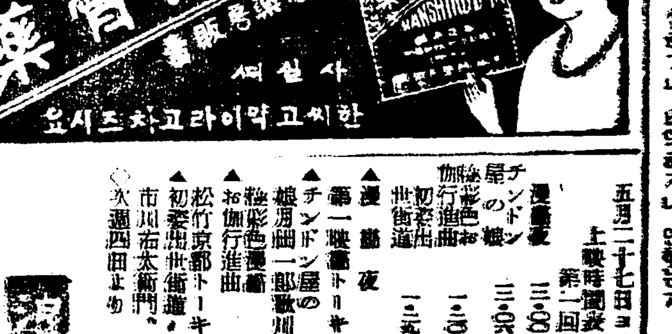
井上代表役員決定

運動稅問題未解決 强制徵收執行?

【大阪】 運動은 興行인가? ...

婚姻한후로!

서양 풍속에 녀자가 출가하면 그 남편의 성을 따라 부르는 것이 ...



開院 韓貸道醫院
米國生物學士 醫學士
特別專門 無料施療
電話光(3)一八七八番
京城 鍾路三丁目

裸體畵

五月二十六日부터 三日間 ... 第一劇場 怪物團 ... 樂園に歸る夫 ... 巴里ッ子 ...

中央館 五百年後의 地獄 ... 浪人 ... 大學の娘 ...

優美館 아리랑고개 ...

朝鮮劇場 ... 團成社 ... 上映 ...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神崎神聖堂支社

市內代理店

-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 仁寺町 富仁藥房
- 阿峴町 春山藥房
-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 鍾路二丁目 白楊堂

地方代理店

-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 咸南端川郡汝海津 鶴仙藥房
- 咸南永興郡宣興面 嚴龍得
- 咸北漁大津 閔泳壽
- 慶南龜浦 朴基煥
- 咸北吉州邑內 壽星藥房

特約店

-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 同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 同 金浦邑 回生堂藥房
- 同 始興郡新東面平眠里 李鍾英
- 同 永登浦 裵振[illegible]
- 同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璜
- 同 水原郡鄕南面發安市 金佑[illegible]
- 忠南大田邑大東町四九 朴[illegible]均
- 同 洪城邑內 李康世
- 同 成歡驛前安城商店 宋千逸
- 同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 同 公州邑本町一四七 崔鍾國
- 全南順天邑金谷里 金禎泰
- 全北金堤邑內 趙東泰
- 同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 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廷鎬
- 同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 同 益山 金永鐵
-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舖
- 同 咸安郡安義面 崔再錫
- 同 河東邑 濟生堂藥房
- 同 晉州昭和町 大明堂 金三珠
- 同 第一藥舖
- 同 金成藥房
- 同 大黑洋藥堂
- 同 ツバメ藥房
- 同 馬山府 李鉉秀
- 同 馬山府 天和藥房 五行堂藥房
- 慶南釜山 韓明東
- 同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孫秀格
- 同 居昌邑 章榮振
- 慶南 蔚山 朴慶龍
- 慶南 密陽驛前 松山堂藥房
- 同 南海 華生堂
- 同 泗川 金鎔國
- 慶北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朴基憲
- 同 大邱府京町一丁目一八 大安堂藥房
- 同 尙州郡邑外畓里 [illegible]八
- 同 善山邑本町 金亨變
- 同 盈德郡丑山面景汀里 金春淑
- 同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 同 佛國寺 金[illegible]
- 同 浦項 鄭[illegible]
- 江原道金化郡邑 金化藥房
- 同 江陵 黃[illegible]源
- 同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illegible]奎
- 同 金城驛前 文化商店
- 同 原州郡富論面興湖里 高[illegible]棋
- 同 平康福溪驛前 丸實[illegible]商會
- 同 鐵原邑中里 協成堂藥房
- 同 洪川郡化村面君召里 申[illegible]均
- 黃海道載寧 金[illegible]善
- 同 鷄林 金[illegible]商店
- 同 鳳山郡德在面赤城里南院 李[illegible]芳
- 同 海州 孔[illegible]五
- 同 信川郡龍門面福隅里 [illegible]契
- 同 延白郡彰德里 吳[illegible]福
- 同 海州 林官浩
- 同 安岳邑 朴俊鎬
- 同 載寧郡 朴[illegible]影
- 平南平壤大和町通 石川赤門堂
- 同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金[illegible]容
- 同 肅川驛前 全[illegible]朝
- 同 龍岡 鄭[illegible]
- 同 [illegible] 李[illegible]植
- 同 雲田驛前 春山藥房
- 平北碧潼 金[illegible]官
- 同 滿浦線香山驛前 朴探瑋
- 同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 同 宣川邑內川北洞 關西婦人商會
- 同 鐵山郡邑內 安東商店
- 同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和松藥房
- 同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俊
- 同 宣川郡川南洞 回春藥房
- 同 平北新義州 廣世藥房
- 同 車輦舘 東亞藥房
- 同 定州 胤和藥房
- 同 鐵山 安東商店
- 同 雲山 天安壽藥堂
- 咸南新興邑內 錫[illegible]藥房
- 同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 同 永興郡古寧面三峰里一四七 金允吉
- 同 豊山邑內市通 義[illegible]商店
- 同 長津郡郡內面上里梅田 姜基順
- 同 北靑郡下車面萬景市 姜完沈
- 同 新高山驛前 晉惠藥房
- 咸北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 同 城津港旭町 晉信堂藥房
- 間島龍井市大通路 永生堂藥房
- 咸北淸津府新岩洞 海東藥房
- 同 城津郡鶴南面禮洞 李炳秀
- 咸北朱乙驛前 北一堂藥房
- 同 明川邑明川洞 新盛商店
- 同 雄基港本町 迎春局
- 咸南北靑邑內里七六 金裕屹
- 同 北靑驛前 五六藥房
- 同 咸興府本町 三省堂藥房
- 同 元山府南村洞 金元輔藥房
- 同 元山府廣石洞 東明堂藥房
- 咸北上三峰驛前 金用根商店
- 江原道鐵原邑中里 鎔成堂藥房
- 咸北雄基上本町 十字堂藥房
- 同 會寧邑大正通 數一堂藥房
- 同 雄基邑本町 仁壽堂藥房
- 同 南陽驛前 松山堂藥房
- 同 雄基邑本町三五七 信生堂藥房
- 同 雄基邑本町四〇五 五信堂藥房
- 同 羅南邑初瀨町一一三 金壽堂藥局
- 同 城津邑旭町一四五 朴東龍藥房
- 同 城津邑旭町四一三 萬壽堂藥房
- 名古屋市南區 平和堂
- 島根縣美濃郡近見 片岡古吉

支社代理店特約店特典大增募

全鮮各地에 支社、代理店、特約店을 大擴張하고 今般 다시大特典으로 增募하오니 이조흔 機會를 일치마시고 急先申込하시오 先着者로 決定합니다

詳細는 規定書를 請求하시오 無料로郵送함

特히 支社設置를 歡迎합니다 支社長이되시고 大成功하시기를바람니다

特約店以外에는 절대로 화리나두전이업습니다

청량음료

시원한 이한잔도 속을알고 마시자

▼…약도되고병도되고 이해상반

뒤탈업도록주의필요

여름이 되니까 사이다 라무네 소다수등이 한철을맛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한참 더워서 땀이 뻘뻘 흐를때 그런것을 한곱부쯤 마시면 창자를씻어 내는듯 속이 후련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청량음료(淸凉飮料)가 사람의 몸에 얼마나 이가잇고 해가잇다는것을 아시고 잡숫는분이 몃분이나 됩니까? 그런것도 모르면 함부로 잡수신다는 것은 좀 우스운일이 아니오니까?

청량음료라고 하는것들은 모도다 탄산까쓰를 집어너흔것으로서 거긔도 몃가지의 종류가 잇습니다. 첫재는 무긔염(無機鹽)과 탄산까쓰로 된것이니 그 것을 염류탄산수라고 하고 둘재는 구연산(枸櫞酸)이나 린산(燐酸)등을 포함시킨것이니 그 것을 산성탄산수라고 합니다. 염류탄산수는 보통 가가에서 타스수라는등 코스모스수라는등 별다른 이름을 부치어팔기도하지오만은 산성탄산수는 그저 그대로 탄산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과즙이나 당분을너허서 달게 맨든 것을감미탄산수라고 합니다. 사이다라무네등속은 모도다 이감미탄산수에 속하는것입니다. 그 이외에 땅에서 자연으로 흘러나오는 탄산수의 섞여잇습니다 그런것은 천연탄산수라고 부르게됩니다.

×

그런즉 사이다나 라무네란 결국 탄산까쓰를 석근물에다가 단맛이 나는것, 신 맛이 나는것, 향긔가 나는것, 등을 석거서 맨든데 지나지안습니다. 단맛이 나는것은 서당(砂糖)이요 신맛이 나는것은 주석산(酒石酸)이나 구연산(枸櫞酸)이요 향긔가 나는것으로는 레몬, 오렌지, 능금, 포도등의 엣센스입니다. 그럼으로 거긔 포함된 영양가치(榮養價値)란 서당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외에는 별로 업습니다. 단지 탄산까스를 석근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위장을 자극하야 소화를 돕고 곳 신장으로 빼저서 이수도(利水道)를 하는데 효력이 엇지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반듯이 살균(殺菌)한것이 아니만큼 병도 념려되고 또 정도가 지나서는 장에 해롭끼치는 점이 잇는만큼 몸에도 조치안습니다. 그러고 청량음료중에도 라무네는 사이다보담 원료가 나쁜 것입니다. 싸다고 그런것을 사시는 것은 재미업습니다.

×

그뿐이 아니라 청량음료에는 여러가지의 병때가 잇습니다. 첫재 맛이변한것 둘째 못쓸 검부적이나 고물이 들어 간 것 셋재 염산(鹽酸) 초산(硝酸) 류산(硫酸)가튼것이 석긴것 넷재 비소(砒素) 암모니아가튼것이 석긴것 다섯재 사람에게 해로웁에 불구하고 빗갈이나 향긔를 내고자 다른 것을 너흘 렴려가 바이업지 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당국에서 법률로 금지하는 것입니다만은 간악한 장사치들을 일일히 단속시키기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사서 잡수시는 각개인이 자긔의 생명을 소중히 녀기어 그러치 안토록 하는 수밧게는 별로조흔 도리가 업습니다.

(一) 첫재는 상표를 보아서 신용할만한 한 것을 살것

(二) 빗이 흐리지 안한가 맛이 이상하지 안 한가를 반듯이 살피어 본뒤 잡수실것。

서양혼인풍속

약혼(約婚)반지 (四)

吳 淑 根

이중에서 단백석(蛋白石)과진주(眞珠)는 불행을오게하는마성(魔性)의 것이라는 미신으로와 혼반지로는 긔(忌)하는일도잇습니다. 보석에대한 상징(象徵)이나 미신(迷信)을 몃가지들면 금강석 정조(貞操)외뜻을표하며 또 남자의위험(危險)을 막는다.

홍옥(紅玉)(루비ー) 사랑 성공(成功) 명예(名譽)의뜻을 표하며 또 락뢰(落雷) 폭풍우(暴風雨) 충해(蟲害)를막는다.

청옥(사파이아) 정조의뜻을표하고 또 화재(火災)를 막고 발광(發狂)을고친다.

진 주 눈물의뜻이다.

묘안석(猫眼石) 요록우를미리알고 또 마음이변하기 쉬운 뜻이라고한다.

×

반지의시작 서양에서어느때부터반지가 시작되엿는지 확실히는아지못하나 그중오래된것으로는 영국박물관에잇는 고대애급십팔왕조(古代埃及十八王朝)(紀元前一五八七年頃)때의미ー라노(木乃伊)의손에 끼워잇섯다는순금(純金)반지가잇는데, 거긔에는 끼고엿든 왕의 이름이 상형문자(象形文字)로 새여잇답니다. 이외에도 상아(象牙), 호박(琥珀), 단단한돌, 홍마리(紅瑪瑙)로 만든반지들의 출토품(出土品)이 잇는데, 이시대에는 순금반지는 임금 이외에는 끼지못하고, 일반사람은은(銀), 청동(靑銅), 류리(琉璃), 도긔(陶器)등을 꼇고, 또, 상고로ー마(羅馬)에서는 반지로 계급(階級)을 구별하얏스니, 노예(奴隸)는 무쇠반지, 평민은(平民)구리, 귀족(貴族)은 은(銀), 의정관(議定官)은금반지엿습니다.

×

이와가티 계급의표창(表彰)으로 소용되든 반지가, 후세에이르러서는 다만부인의 사치품(奢侈品)으로만 되엿고 또혼인의표로쓰는 풍속도 상고때부터로 혼인을하면 서로반지를 교환하야 종생토록 끼고지내엇습니다. 긔원후일세긔로ー마의 『플린」시대에는 다만 혼약(婚約)의 표로서 쇠반지를 썻고 금반지는 이세긔(二世紀)때부터 써왓스나 이풍속이 그대로 긔독교도(基督敎徒)사이에는 실행되지 아니하다가 십일세긔 때에와서 교회의공인(公認)을어더 결혼을 축복하는 표로 쓰게되엿스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나려오는 결혼반지의 시초입니다.

×

옛날부터 반지끼는 법이 결혼전에는 왼손 무명지(無名指)만 내노코 어ᄂ손가락이든지 상관업고 약혼이후에라야 무명지에는 끼는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손가락을 『엥게지멘트·핑거ー』라고하니 우리 조선서도 아마 이축복(祝福)바든 일홈을 부치라고 입때까지 무명지로만 나려왓는지도 모르겟습니다.

×

결혼반지는 결혼을 긔념하기위하야 만들어서 신랑신부가 왼손 무명지에 끼는법이니 긔독교식(基督敎式)의 혼례식에는주례(主禮)하는 목사(牧師)의 손을거처서 교환을 합니다. 특별히 이반지는 옷가락처럼 동이풀으고 이은금이업시동반지로만 드는데 속에다가 결혼년월일이나 『이니시알』또는사랑을표현하는 문구(文句)를 색이기도합니다 등어불은반지는물론 긔혼자(旣婚者)라는 뜻을표시하는것입니다.

×

이외에도 반지를도장(圖章)삼아쓰거나 또는자긔의 생활상표어(生活上標語)나 격언(格言)아름다운 시구(詩句)를 색여갓는일도잇는데 쎅스피어의 반지에는 『나를사랑하라, 바리지말라』고새여잇섯습니다.

나는글짜

영국의남쪽해안지방에서 자동차협회가교통안전의 뜻을 꽁중으로부터 선전하는것입니다. 비행기에 달린긴깃발이 착펴저 마치글씨가날려가는것과 가태서 선전가치가 백퍼ー센트。

童話 소경비둘기 (三)

金 曾 泰

「이게 아모래도 국화에 엇든일이니 누가묘안에 들어가보오 아모래도 저비둘기가 아니요」

이말을듯고 엇든 젊은사람 하나이 「그러면 내가 들어가보지요」 하고 성큼뛰어 묘속으로 들어갓습니다 그래도 비둘기는 달어날 생각도 안하고 판우를 주동으로 쪼으며 슬피 울기만 햇습니다 젊은사람은 한동안 묘속에 들어가 잇드니 조금뒤에 무엇인지 조그마한 약 가튼것을 손에들고 올나왓습니다 「이게 비둘기의 커레 노혓섯서요 이게무엔가?」 하며 여럿을 보엿습니다 늙은이는 한참동안 그것을 손에들고 이리보고 저리보고 하드니 아조놀난소리로 「이사람들아 살니는 회생약이네 어서 속히 저판두경을 깨고 시체를 끄집어내게, 저비둘기가 암아 물고온것일세 제명에 죽은것이 아니여서 부처님께서 돌우 살녀주시는 것이네 자ー어서 들어들게」 하며 서들엇스나 누가하나 그말을 참말로 듯는사람은 업섯습니다 노인은 동리사람들이 말리는것을 보드니 그만 성이나서 자긔가 삽을들고 묘속으로 들어가서 판두경을 삽으로 두려 떼기시작햇습니다 비둘기는 그제야 푸드득날엇습니다 그러나 곳묘게레안자서 울기시작햇습니다

그때 순이는 산으로 나려갓다가 넘우도 조롱이와서 양지쪽 따뜻한 잔디우에서 잠을잣습니다 그랫더니 꿈속에 아조 아름다운 꽃밧속에들어가나 비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잇섯습니다 넘어 즐겁게 즐겁게노는바람에 해지는줄을몰랏습니다

순이가 해가넘어가 저녁때가 되엿을 생각하고 아즈머니한테 꾸중을 들을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바구니를 옆에 끼고 달음박질을 처서 집으로 들어오려니 난데업시 하늘에서 무언지 식검언것이 나려와 얼굴을 탁 막어놋습니다 순이는 별우도 긔가막혀 어젓벗슬 쓰고 그식검언것을 두주먹으로 두다리며 울고잇섯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뢰소리 우룽루 콩밧머리우에 떨어질듯이 요란히 울리는바람에 그

습니다

순이는 어떠케 울음이 북바고 애를쓰다가 그만도다시 정신을일코 말엇습니다 노인은 관두경을떼고 순이의 시체를안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외가슴에 귀를대어고 무엇을듯는듯이 드니 마음에 깃붐을 가득띄우고 시체를안고 밧으로 나왓습니다.

동리사람들은 노인의뒤를따르상 맛친사람의 행동과가티보앗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때는 눈도떡보지안코 순이의 입을버리드니 맛가그비둘기가 가저온약을 입에흘어 집어가지고 순이에 입안에 너허주엇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눈도깜박이지안코 순이를 나려다보앗습니다 조금뒤에 순이는 입가에 가는 미소를나타내며 벌드니 『후유ー』 하고 한숨을내여쉬며 눈을 떳습니다

그제야 동리사람들은 순이가 다시살어난줄알고 우루루몰려들엇습니다

이러케하야 순이는 다시 살어낫습니다 그것은 두말할것도 업시 그소경비둘기의 힘이엿습니다 순이는 알라가 그만긔가 막혀서 까물어처서 흘어동안정신 차리지 못하는것을 아즈머니가 그만죽엇다고하야 장사까지 지내게되엿든 것입니다

「소경비둘기가 죽은아해를 살렷다」 이소문은 그날로바로 귀에 들어가게되엿습니다 그리하야 순이는 넘우넘의를 유심을 바때 그전보다이약이를자세히하고 만분사람들을 바쁘가지고 나왓습니다 그리하야 소경비둘기를 다리고 아조즐겁게 살게되엿습니다 (끗)

「뻐스·껄」은 애를못낫습니까?

問 저는 금년 십팔세소녀이온대 『뻐스』차장이 되려하오나 뻐스차장을 지내면 장래 결혼하여서 어린애를 못낫는다하니 그것이 정말인지요(市內一女姓)

答 이전에는 녀자는 집안에서 살님만하는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얏지만은 근대사회경제상태의대변동은 동서양을물론하고 녀자도 각종직업전선에 활약하지아니하면 아니될형세에일으럿습으로 그직업이 녀자의몸에엇더한영향을 주는가하는문제에대하야 알어둘 필요가 잇겟습니다 원래 남자는 일터에나가서 일을하고 녀자는 집에서 아이를나서 길르는것이 각각 그의 자연스러운 천직인데녀자가 자긔의 천직을떠나서 남자와가티 각종직업에 종사하게되는때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담이 너머과중함으로 말미아마 녀자의 특수기능인 천직에 일정한 영향이 올것은 누구든지 추측할수잇겟습니다 통계에의하면 소위직업부인의대부분은 독신자라는 사실을 알수가잇는대 그중에취직하고잇슴으로 말미아마 결혼할시긔가 늦저지는분이 적지아니합니다。 이러한녀자는 결혼후생식긔능에 조치못한 영향을 끼친다는사실을 알수가잇습니다。 직업부인들은 생식긔능이 조치못하며 병에대한 저항력이 약함으로 병에걸니기가 쉬여서사망률이만코 아히를 낫는다하더래도 약한아히를 남으로 잘사망한다는 사실을 서양사람이조사발표한 보고를 보앗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동일한 조사가 수년전부터 진행하고잇습니다. 연초공장 인쇄공장등의 녀직공 녀점원 식당녀급사 뻐쓰차장엘레베ー타ー껄 녀사무원의 여덜가지종류의 직업부인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조사되얏는데 결국불임증이 잘오는것은 인쇄공장의 녀직공이라는것을 알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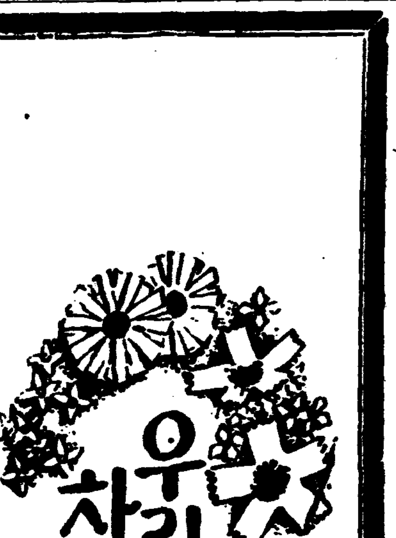
왜그려고하면 인쇄공장에서는 납(鉛)을만치게됨으로 납의중독(鉛中毒)으로 인해서 불임증이 생기는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부인에게는 별로둣특히 그직업으로 말미아마 불임증이 온다는것은 볼수가업습니다

그럼으로 뻐쓰차장을 지내다고 반듯이 불임증이온다고는말하지못합니다 안심하고지원하시요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煥)

우리차지



음력 사월팔일은 부처님의 생일날이시다 부처님을 밋는 집에서들은 파일등을 달고 이날을 명절로 쉰다。철롱네집 파일등이세개 하나는 철롱의 언니것 하나는 철롱이것、또하나는 철롱이 동생것인가보다。

(글쓴사람 박상진)

短篇小說 灰色街 【上】

李石薰 作 申哲秀 畵

어느때 가든면 벌서 신록(新綠)이 욱어젓스야할때인데 금년은 웬일이잇는 관계인지 오월중순이 되어도 나무이피 절반이나 자랏슬까 말까하다。그래도 가로수(街路樹)는 제법 푸른 그늘을짓고 벌서 산뜻한컨구두와 청신한 파라솔이 펴뜻펴뜻 눈에띄인다。항상— 더군다나 외국사람을 볼때마다 절실히 느끼는바이지만은 대체 조선사람처럼 계절에 민감하고 게다가 사치한민족은 다시는 업슬것이다 가령 여름기분이 어데지 들기시작할때면 그들의 생활에 비해서는 넘우나 지나치다고 보일만큼 벌서 여름치장을하기에 바쁜것이다。

어처니없은 맑드니 갑작이날씨가 변하야 칩칩하게 흐린하늘에서 가는비가 지향업시 뿌는저가는 『바바리코ー트』복주머니에두손을넛고 비를 마즈며종로 의페이브멘트를 회신쪽으로 걸어갈때 저편으로부터 척, 규칠두 사람이 역시비를 마즈면서 걸어온다。똥똥하고 ■다막한것이 먼데서 보면 누가누구인지 엄는분간 할수업스리만큼 두사람은 비슷하다。마조치자최는빙그레우스며 『가세—내 차한잔사지』 하는것이 첫인사엿다。

『돈좀 생겻나?』

『팍한잔갑바께어더 미리갈오해란』

『이자식이 앵무생가—남에꿈 내만내나』

『하하……그때 내가출줄 굴주린때든만치 자네말이안 이처지네그려』

세사람은 『에토알』로갓다。

『자네미망인하구 잘지내나?』

『옹—퍽화평바던는데 또나오게 롱삼어움으니까 됏서』

B미망인 말로는 자기 옵바가된다는 한 오십나뵈는 늙은 신사가 가끔 오군 하는대 하로저녁은 B부인이 외출한사이에 이집에는 여인네 혼저잇는 집이니 대단히 안돼지만 다른데로 나가달라는것이엿다 B부인은 자긔올바라하지만 아모리 보아도 세상의눈울긔는 정부(情夫)가렷다 생긴 모습이 B부인과는 동떠러지고 차림차림이상당히 돈냥이나 잇서보혓다。치자가 버젓이잇는대 메칠에한번씩 와보고가끈하는 모양이엇다 귓심한생각이나서 『나가랍사람을 왜 에당초에드렷소요』 좀 배짱을부려주니까 큰소리를하리만치 세력이업는지 흐은B부인이반대를 하기때문인지영감은 우울(憂鬱)하며 후견인(後見人)인 옵바되는 자기에게 상의도하지안코 제맘대로한일이니 어쩌니하며 하여튼 부인분자사는것이니 좋다거라고 청을해 다십히 하는것이엇다 그래 한참 그엿긔의 얼골을 도레히봐 주다가

『그럼 나갈려니 염려마슈』 하고 의미잇게말하니까

『아니 머 염려해서가아니라…… ……』

하며 박그로 나가버렷다. 이욱고 B부인이 도라온뒤 옛갈께서 말슴을 들엇노라하고 내일이라도、곳 나가겟노라 하니까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관계찬흐니 그냥잇스라하기는하나 매우 소극적이엇으로 모ー든 눈치를 알듯싶헛다。나중에、그동안 배풀어주신 은혜는 잇지못하겟노라 하엿다。

『그래 지금 하숙을 구하는중인데 자네두 어디좀 알아봐 주게』

『그래 엇감 자네가 가루챌 것가러서 그러지 하하하……』

규칠이는 묵묵히 아주 경황이 업시 안저 잇섯다。메레를 이 얼허버리고 어머니의 권유를 물리칠수업서 애정업는 안해와 살림을 하노라니 그의 말처럼 무덤속의 생활이엇다。그러릇 열심한 독서가로 동료들새에 평판이 놉든 규칠이가 우울한 얼골로 회색의 거리를 헤메기로 시간을 보내는일이엇다。

『여보게 한주 자네 바ー동무를 또 해줘야겟네 아주 이저버릴라고 안댕겻더니 바ー는 역시 외로운배에게는 질거운 항구(港口)야』

한참이야기를 하는새에 어느듯 황혼이짓을나리고 여전히오는 보슬비를 마즈면서 가로등이 희멀금하게 눈을뜨고섯다 이 여기저기취직이 다틀어지고 게다가 폐병이 심해저서 남마다 각혈(咯血)을하고잇는 사허이를 문병가기로하고 세사람은 자리를 이러섯다。

나가던참에 석간(夕刊)을 무심히 드려다보다가 우리는 너무나의외의기사를 발견하고 놀라지안흘수업섯다。특히 최군의 충격이 더심하엿다。

『미인여급(美人女給)비관자살』이단 표제로『바!노ー보이·미ー르』의『니ー나』가폐병과실연(失戀)을 비관한끄테칼모친을 먹고 자살하엿다는기사엿다。

『실연?』

—흥 최군이나 아닌가하는 망상이 머리를스치고 지나갓다 세사람은 동동거름으로 다방층계를 내려왓다。—끗—

誰だ!!

若さを奪ふ者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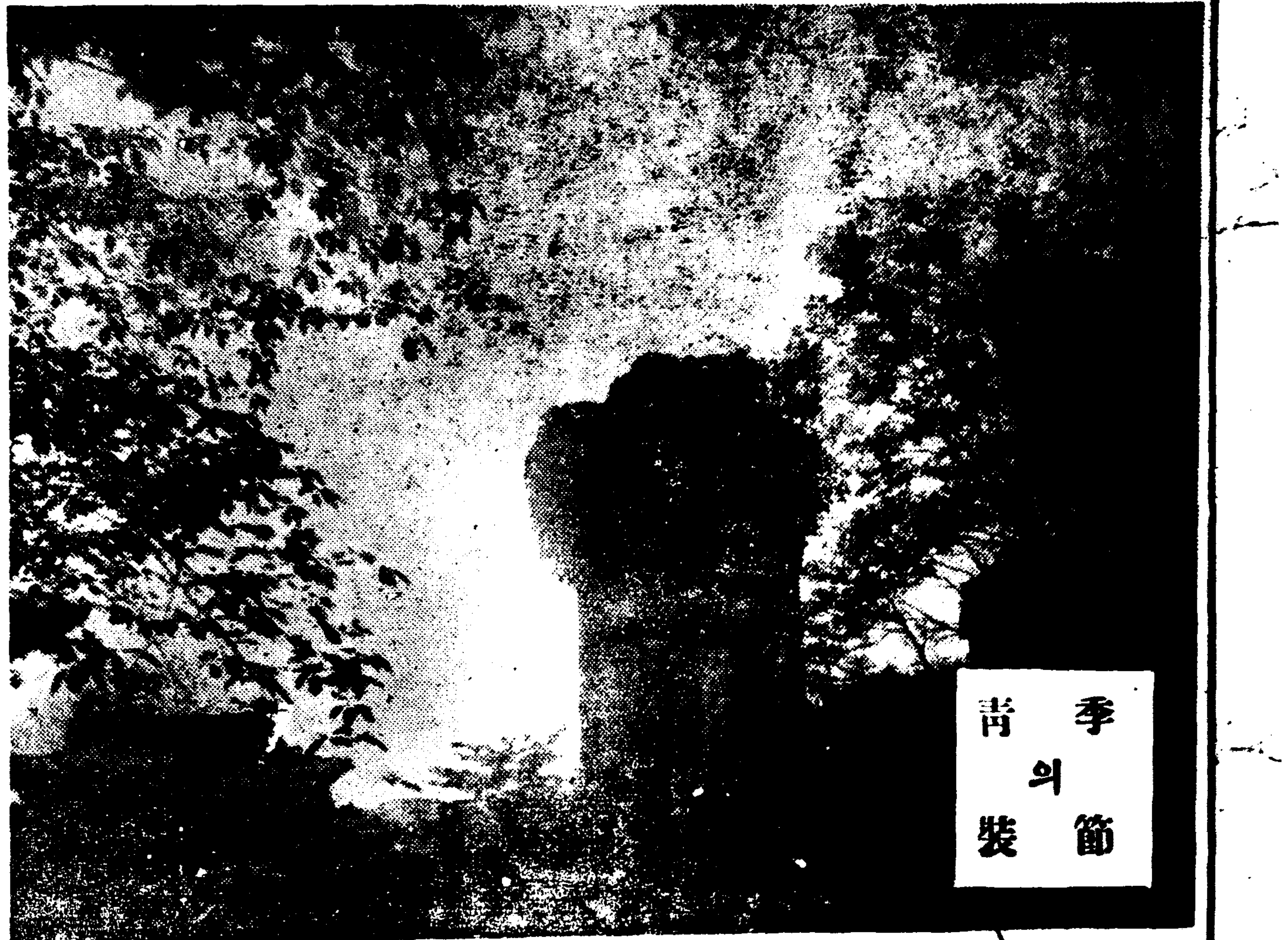
살결의靑春美를뺏는者는누구인가……그것은 당신자신이라고하면놀래실지도알수업습니다 그것은事實입니다。말하면 質이 조치안흔크림의 使用은 그甚한것입니다。粗雜한크림는皮膚의生活力을빼고잔주름과기미 부름 크림티의原因이되는까닭입니다、당신이 萬若麗艶한 永遠의若肌를바란다면살바탕손질에 레ー도구리ー무를 使用하여주십시요。

벗꺼름을防止하는살결의必需品!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리ー무

レート化粧料本舗・東京・平尾贊平商店



季節의 青裝

存在學의 概念
—形而上學批評試論—
◎ 金基錫

우리들은 存在가 個物에잇서서 자기를 한개의 진실한存在로 限定함을 보앗다。이個物이란무엇인가。이個物이란것을 깁히생각해봄이로서 우리들은『라잇났즈』를 記憶한다。『라잇났즈』는 個物이 個物이되기위하야는 굿게『문』을 다더야하는것으로 보앗다。個物이 다른 個物에 대하야 굿게『문』을 닷는다는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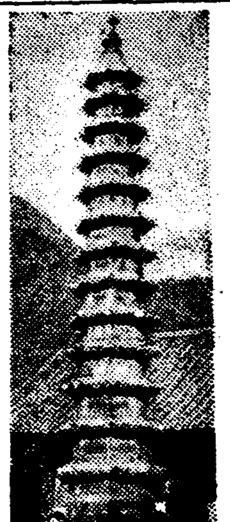
……**個物**……이 서 자기를 世界에 자족할이 업는 움직 하나인 자기로 限定한다 는것이니 … [illegible]

……**時間**……的『場所』的一般者

……**特殊**……

……**限定**……

[illegible]



妙香山遊記
—檀君傳說의發祥—
(四) 金武吉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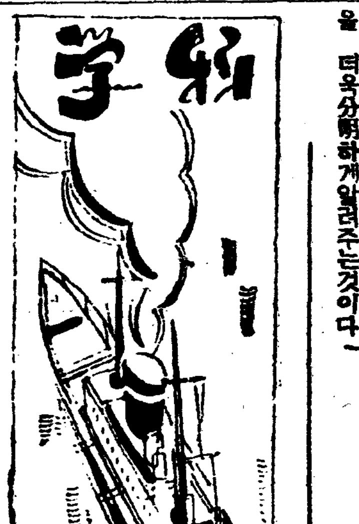
文藝時感 小說안쓰는辯明
◎ 蔡萬植

[illegible]

古書解說 (一)
朱子增損呂氏鄕約
方鍾鉉

이책은 序文도 跋文도 …… [illegible]

漢詩募集
題、綠陰
押=鶯
◇限五月末日
(薄謝進呈)



四象醫學批判 (續)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⑧ 李乙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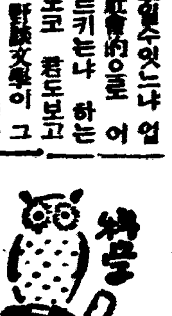
[illegible]

四象醫學과血液型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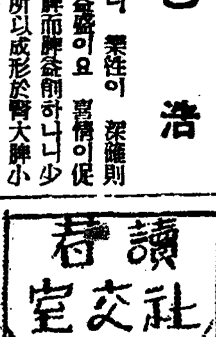
血液型 四象人	O型	A型	B型	AB型
太陰人	六	四	四	二
少陰人	五	八	六	三
少陽人	一	一	一	
太陽人				

O型	粘液質	
A型	憂鬱質	
B型	多血質	
AB型	內省的A型的 外面的B型的	



世界最初의 夜間飛行은 佛蘭西에서

[illegible]



讀書社交室

▲地方普通學校卒業生을 店員 其他로採用하실 意向이계신분은 京城府勸農町一八九番地新兒童社로 下命하시면 眞實한少年을 薦擧해드리겟나이다

▲嚴元變兄이여 十餘年前故鄕을떠나 滿洲로간李亨彬이외 … 車桂善

▲古錢 左記古錢의 時價를 本人에게 直接 或紙上으로 通知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 또讓渡를 希望하는분은 要信。
一、表面 中華民國開國紀念 …

京城下宿屋 李亨彬 府內蓬萊町一丁目一四一ノ一

▲나의 竹馬之友인 鄭俊明君 消息이 杜絶된지 어연간 八年餘、君의消息이몰라 갑갑하네。 … 開城府南山町八五〇 現代詩集社內 林光澤

▲本人이詩에 滋味가有하야 詩集을發行하고저 … 韓百坤

▲생실—色絲—製造業者에게뭇습니다 … 元山上洞四七 崔錫崇

▲生의友人이 光化門通某官廳에 勤務中의 三十前後의勤實한靑年으로 … (東京邑竹巷里一五五金鳳石)

磁氣嵐

★曆★
五月廿九日(金)
舊丙子四月小 (初九日)
辛亥·金·亢·破
●祭祀儀屋에宜함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明治コナミルク
母乳代用 加糖粉乳
幾十萬의어린이가哺育의依하야實證되는이品質！

東京兒童愛護聯盟編
我が子の一年
生後一ヶ年の育兒の注意と日記及び體重身長比較表
無代贈呈！
(메이지가르젓)
明治가르젓(赤罐又는小兒印)의 續券(罐中에드러잇는薄紙片)의 裏面에어린애기의 住所氏名、生年月日을記入하야 東京市京橋區京橋二ノ八 明治製菓コナミルク係로 郵送하시면出生後一年未滿의어린애기一人에一部式 右育兒讀本及乳兒日記를 送呈함
締切·六月三十日

若草映畫劇場
十字軍
女軍突擊隊
曙の娘
榮光의道
愉快한王子님
乾杯學生諸君
團成社
東洋劇場
世上萬事塞翁馬
그림자업는악마
十三日의殺人
罪와罰
明朗お染打亂
朝鮮劇場

連載野談 **布袋記** (二十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머슴살든엄검 (十一)

옴돌이 소곰한말을 얘기다가 도적의 루명을 쓰것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본색을 감추고 감추어 가면서 보존하든 작명을 숙검이시 일허버리게되엇다。

「허、모든것이 내팔짱 내물상한몫숨은 이소곰한말과 박귀게될줄을 어찌 뜻하얏스랴 적은것을 탐내다가 큰것을 일른다는 옛말을 내가 왜 이젓든고。로파가 악한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미련한것이 지금 내가 가는곳은 분명히 내가 죽는곳。내가뭘찡 이러케 똑아닌본새이 탈로되고。본새이 탈로될으로서 죽을지뎐。차라리 옴모의손에나 잡히엿든들、분명히 옴모가 벼슬도하고 상도타게되여 그동안 의지하고 지내든 신세나갑흘것을。허허、이것저것이모두 내팔자。내가 어쩔지못한죄。」

이러틋 지난일을 후회하며 잡혀가 압록재(鴨綠宰)압헤 끌어업드렷다。

「이놈! 저 로파집은 어느때 들어 갓든고?」

하고 압록재는 엄한 목소리로써 물엇다。

옴돌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을 아니하고 죽이는때만 기달리지 죽기로만 작정하얏다。

그리다가 못득생각킨것은 로파의 집에서 쪼겨난 사정을잘 말하면 혹시 다른 말을 심히 뭇지아니할가하야 그 전후 사정을 서서히 말하얏다。

「예ー。못난놈。소곰한말을 주엇스면 그만이지。신은 웨 훔처?。소곰갑 대신으로?。」

하면서 압록재는 도한 큰 소리로 못는다。

「알외여라!。」

하며 사령들은 주장ㅅ대로 옴돌의 엽구리를 찌른다。

「에이ー。여러말할것업다。그런 못난놈은 때려나 주어야지。잡어 엎허라!。」

하는 호령이 내려졋다。옴돌은 잡어 엎허라는소리를 너머나 반갑게 들엇다。그것은 다름아니라 볼기를 얼마나 맛든지 맛기만하면 곳뇌여 가리라는 생각이엇다。

그래서 어서 볼기맛기를 축수하얏다。

압록재는 옴돌을 얼러노코 룩가를 때리려할새 그 까닭없는 볼기짝을 보니 어찌나 맘갓든지 때릴곳이 업서보엿다。

그래서 겨우 두어번 엉포로 때리고 내 물러치려하얏다。

로파는 옴돌이가 볼기 맛는것이 신긔하기는하나 어쩐지마음이 조마 조마하야 어서 속히 맛고 갓스면하는 생각이간절하얏다

옴돌은 볼기 몃개를 맛고、곳 이가게된것을 속마음으로 크게 깃버하얏다。

그래서 뺄은 거룸으로 삼문밧글 나올새 중계、중게서서어실렁 거리든 군사압흘지내기가 무시、무시하얏다。

다만 고개를 푹 숙이고 조마、조마하는 가슴으로써 여러군사압흐로 갓가히 갓다。

「이자식! 대가리를 좀들어」

하고 그 군사가 머리를 홀치쥐고 고개를 번쩍 뒤로 제치며 두려지게 드려다 본다。

「허 몹작이시 잘생겻고나!」

하고 옴돌은 고개가 뒤로 제처진채로 황소숨과 가튼 숨을 내쉬엇다。

「이놈아! 얼골의 살은 다어대다두고 뼈만 가지고 다니나 응?」

「뭘지 그러케생긴놈이올시다」

「자식 못낫다。그러데 그 푸달진 소곰짐은 누구더러 갓다달라고 그대로가。」

하며 그 군사는 그제야 잡엇든 머리를 노코 밝겨로 소곰짐을 지면서 가지고 가라하얏다。

옴돌은 볼기만 맛고 자긔본색이 탈로나지아니한것을 깃버하야 뺄리 가기로만 생각하고 소곰짐은 생각이나하엿다가 그 군사에게 두번째 갈이 죽는줄낼을 당하얏다。

옴돌이 그조마、조마한 압록재판가를 버서나서는 소곰장사들할 정도 때려젓다。

그래서 불류하(沸流河)라는강에 이르러 여러배사공의 심부름을하기로 되엿다。

그런데 또한 관원과 군사가 오는것이 보힙으로 얼든 몸을 피하려하얏스나 미처 겨를을엇지못하얏다。

映畫

映◇畵◇와◇音◇樂 (5)

金管

토ー키ー初期 사운드版(音響版)이라는것은 從來의 音樂伴奏와이렌트時代를 펄님에錄音한것뿐으로 何等 注目할만한것은 되지못한다。그單純한 音樂伴奏가 畵面과는 아모런 現實的關係가 업시 나타나고 업서지고하는 사운드版의 不自然한것은 事實이나、畵面의 情緖를 雰圍氣를 助長하고 出演人物의 心理描寫를 伴奏音樂으로서 어느程度까지 深刻하게 表現할수잇는것은 效果的 이엿고 따라 音과騷音의調和關係를 밝힌것은 否認할수업다。

實際方面에잇어서 토ー키ー에 使用되는音樂을 두가지로生覺할수가잇다 하나는 劇的要素와對稱할수잇는 音樂要素로서 映畵의內容과 有機的關係를가즌 所謂音樂映畵라는것가운데 씨우는 音樂이다 音樂은現實性을 가지고 劇의進行가운데서 積極的役割을하고잇다。

映畵冒頭에나오는 製作會社의 마ー크、메인타이틀、製作參加者타이틀、캬스트等은 그映畵의性質(內容)에따라서 그映畵의 雰圍氣가운데 觀衆을 案內하기爲하야 音樂이씨운다 맛치 오페라의 序曲과가튼 役割을 가젓다고할수잇는것으로(勿論 性質은다르다)映畵의 테ー마 가音樂으로서 伴奏되는것이다 (계속)

다음으로는 伴奏音樂이 象徵할수잇는 空想的畵面 (場面)가튼 로맨틱한데는 不自然한 늣김을 업시 쓸수잇다。『비바·빌나』(奇傑판초)……一九三五年冬 東京封切……에는 여러군데 긴 섭다이룰이 나오다。그境遇 씨우는 音樂을 들을것(볼것)가튼면 맥씨코의 內亂을 救하는 판조가 말(馬)을 라고 달리는 씬과後擧한 內亂의 씬을 先行하여서 前後 에피소ー드를 巧妙하게連絡하고 따라 지루하기쉬운 섭라이틀部分을 自然스럽게、미끄럽게흘러보내는데 成功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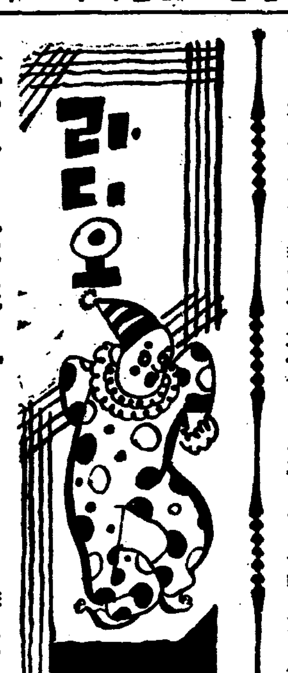
또 다른手法으로는、엇더한映畵의內容을 音樂上의 一定한主題로서 場面場面에조차서 그主題를 自由自在로變曲하야 伴奏로서效果는勿論、音樂이 그內容과 有機的으로關聯을가지게되다 (이것은압호로 우리들이硏究할만한 重要한것의하나로 伴奏音樂으로서만이아니라、純全히音樂映畵로서볼수도잇는것이다)좀 오래된 例이지만 와르타 루도만(監督)이 볼프강·체르라(作曲家)와 協力해서 맨든『世界의멜로디ー』(Die Melodie Der Welt)가 소나타樂式을 基準으로한 프로그람 셈포니ー(標題交響樂)이라고 불수잇는것은 우에서 말한 伴奏音樂으로서뿐만이 아니라 無數한 寫實的畵面을 素材로한 映像과 形式美(소나타樂式)를 갓춘 音樂이 有機的 立體的으로 끈은라뷰리된것이다。

소나타는 音樂에잇서서 歌唱形式에 對한 即 建築美의 基礎우에슨 로지칼한 器樂曲의形式이것이다 베ー토벤以後 그것이 四樂章으로 되엿고 各樂章은 서로 獨立되면서 도한 相互關聯을가지고잇다 나는 여기서 樂式論을 細論하고나가기는 讀者로하여금 混亂케할것갓기에 省略하고 다른機會로 밀우겟지만 하여튼『世界의멜로디ー』가소나타樂式에依해서 製作되것은注意할만한것이엿다

나는 生覺하기를 音樂의形式(樂式)이 往往이 西歐作家의作品에서 應用되것을보고 듯는다 文藝評論家인 崔載瑞에게들은 말이지만 헉슬레이의 엇던小說은 로도樂式으로되엿습으로 樂式을 몰으는 自己로서는 完全이 理解하기에 힘이든다고ー文學의 例은 말할것도 업겟지만 上揭한 世界의 멜로디ー의 藝術的價値는 俗見인 畵面과音樂의몬타쥬ー說明은 畵面에隨伴하는音樂化라는것으로만은說明되지못한다

뉴스렐을公開

【헐리우드發同盟】=最近단스映畵로부터 휠아서 正當한 스렙의 드되는 方法을 紹介하다 푸렛드·아스테아君과 진저·로자스孃共演의 『포로우·더·푸리ー트』



二十八日 (木曜)

◇午後六時卅分 노래공부(一) 一、산넘어저쪽 鄭芝鎔謠 玄霽作曲 二、퐁퐁사새 金泰午謠 玄霽作曲 外實演兒童數名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釋尊降誕記念의밤—

◇同七時 講演『釋迦의生涯』 同上女子技藝學校 金 鳳 守

◇同八時 講演『佛教의世界觀』 佛專講師 朴 允 進

◇同八時三〇分 千手와和淸 一、千手 二、八相錄和淸 金 蓮 花 全 昔 峰 李 孫 協

◇同九時 音律『靈山會像』 林 元 植 李 仁 相 玄琴 李 彦 植 洋琴 獨 承 煥 奚琴 池 龍 九 短簫 洪 斗 憲 細笛 趙 載 弼 杖鼓 李 章 夏

◇同九時三〇分 佛教劇 "孝聖目連" 第二幕 『釋尊降誕記念會場으로부터中繼』

【配役】 靑提夫人…柳今先 卜…金福姬 舍利佛…姜壽慶 世尊…任仁福 阿難…金甲寅 金文…朴梅子 (金利)…安再淳 鄕老A…李基 鄭老B…鄭順玉 獄主…魏京順 獄卒A…閔末珠 B…池玄昌

第一放送

◇午後六時 掛合童話

◇同六時一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大) 義太夫

◇同八時五〇分 (大) 浮世節 竹本小仙外 橘家橘之助

◇同九時五分(東) 長唄 富士田新藏外

二十九日(金曜)

◇午後零時五分 古談(異人除禍) 李 敏 求

◇同三時一五分 常識講演『色盲이야기』 申 聖 雨

◇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 修學旅行『伊太利』 (二) 徽文高普 金 道 泰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스포쓰講演『籠球이야기』 丁 相 允

◇同八時 紀念講演『農村振興과金融組合』 中樞院參議 韓 圭 復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孔明歌 四、寧邊歌 五、山念佛 六、긴난봉가 七、자진난봉가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白牧丹 鄭綿紅 一、短歌 二、唱劇調 林 小 香 鼓手 丁 元 燮

◇同九時二〇分名曲鑑賞 (레코ー드演奏) 첼로와 管絃樂 協奏曲B短調 作品一〇四……드보르작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마·논·트롭포 第三樂章 알레그로·모데라ー토 (解說)朝鮮音樂家協會 金仁洙 첼로 에마누엘·포이어만 伯林國立歌劇場 管絃樂團 指揮 미하엘·타우베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모던小唄

◇同二時 (東)婦人의時間 家庭과法律

三十日 (土曜)

◇同二時四五分(東)오림픽派遣選手豫選 琵水上選手權大會實況

◇同六時(東)合唱 JOAK唱歌隊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

◇同七時三〇分 講演 園 谷 榮

◇同八時 (東)長唄 矢篇永三郎

◇同八時三〇分(東) 논에서우는 개고리소리中繼

◇同八時四〇分(東) 寫生漫談 德川夢聲外

◇午時〇分五分 (東)輕音樂 一、鐵琴獨奏 鬪旋舞가…山本銕三郎作曲 二、木琴獨奏 (가)비(雨)…코ー레作曲 (나)五月의百合…데이른릿히作曲 (다)가나리야…사바시르作曲 鐵琴과木琴獨奏 星出 義男 피아노 藤井 弘也 아코ー듸온 松原千加士 三、아코ー듸온獨奏 (가)라、스바니요라…치아리作曲 松原千加士編曲 (나)조고만喫茶店…레이몬드作曲 同 (다)고로라도의달…킹作曲 同 (라)따이나…양作曲 同 (마)봄의歡喜…퓨ー푸ー르作曲 (바)알론조 松原千加士編曲

◇同一時 野球試合實況—京城그라운드로서— "府廳對京電"

◇同六時三〇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伊太利』(二) 徽文高普 金 道 泰

◇同六時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紀念講演『東鄕元帥를追慕하면서』 京城女師 沈 宜 麟

◇同八時 講演 滿洲國特許發明法과意匠法에對하야 李 采 鎬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꽃타령…(金、申) 二、설움의벌판…(申) 三、審月의馬車…(姜) 四、東風이불면…(申、金) 五、쌍쌍화…(金) 六、문허진情炎…(申) 姜文秀 金海華 申鶴秀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東南風祝文外 一、東南風祝文 二、念佛打令 三、배따라기 四、梨花打令 五、달거리 崔貞植 孔 蘭 香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 『소(牛)는눈압헤잇다』 洪 燦 日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午後〇時〇五分 輕音樂 星出義男外

◇同六時 (東)이야기 平川清高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佐藤 泰舜

◇同七時三〇分 (寶) 俚謠 新潟縣

◇同七時四〇分 (仙) 俚謠 山形縣

◇同七時五五分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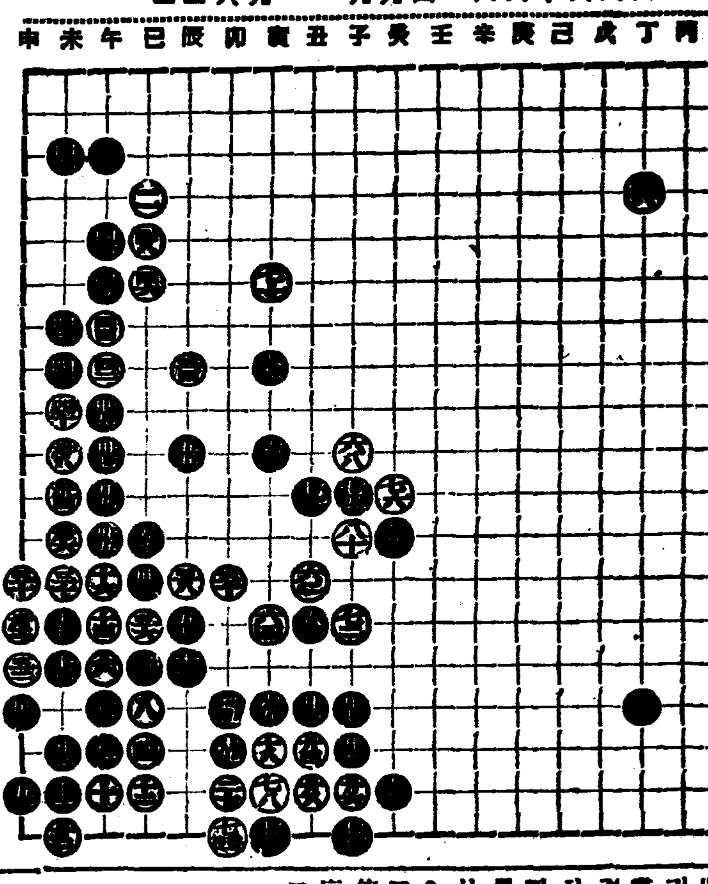
◇同八時二五分 (東) 人情噺 柳亭 佐樂

◇同八時四五分 (東) 畜潛 芝金外

◇同九時 時事解說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5—

白 丁奎泰 黑 任佑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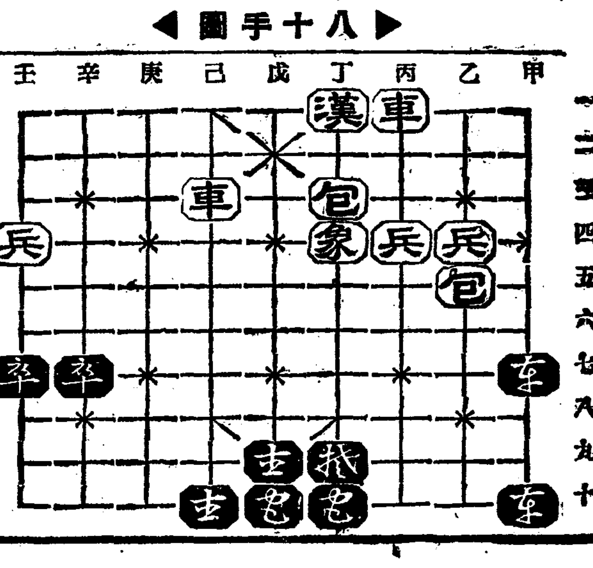
●三六 寅의十六 ○三七 丁의四 ●三八 癸의十八 ○三九 子의十 ●四〇 寅의八 ○四一 寅의六 ●四二 丑의十一 ○四三 子의十四 ●四四 寅의十九 ○四五 卯의十九 ●四六 子의十一 ○四七 癸의十一 ●四八 子의十九 ○四九 寅의十八 ●五〇 癸의十二 ○五一 子의十三

泰極文氏評日 黑白이 中央方面에 互相聯結은 競爭心으로 着眼되다 白은 中央脫出을 計도 含蓄하고 南邊侵害할 思想도 兼備하고 黑은 北邊進展에 注力하니 左右觀光에 時期는 適當하다 黑癸의十二擁하고 白이 子의十三로 斷하은 效果가 잇슬듯하니 來頭進展을 拭眼이 待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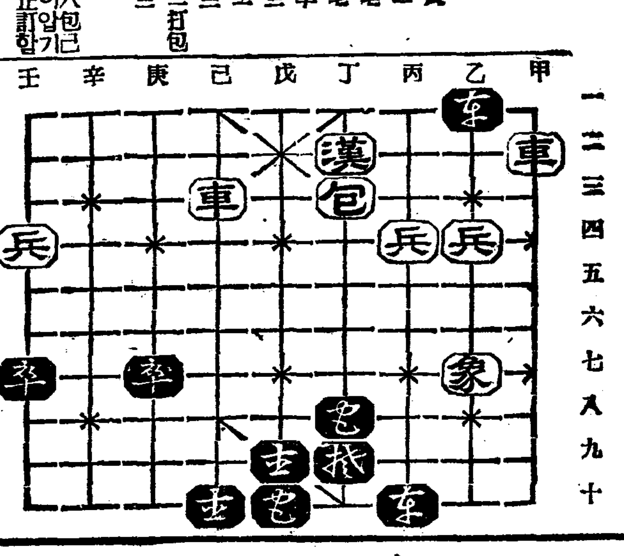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九)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八十手圖▶



◀九十手圖▶



丁十四—丁十五 乙五包—乙二 辛五象—庚七 丁三象—乙五 甲十一兵—丁十 丙一車—丙二 甲七兵—甲八 丁一漢—丁二 甲一兵—乙一打包 丙二車—甲二

八十一回分己八包己十二은 漢植이압으로 正하라

映畵界挿話

法廷에出頭한 믹키·마우스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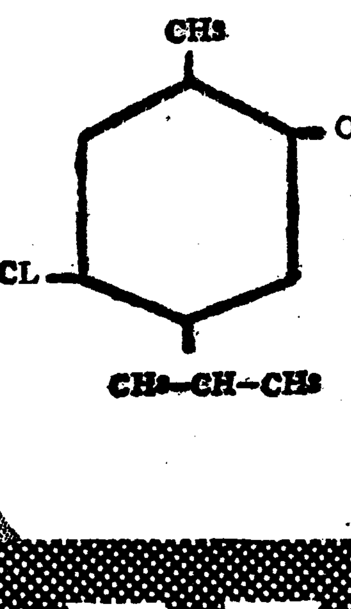
【칼베리安同盟】 美國의 라듸오 經營會社에서 今回賣出하는 라듸오·세트에다가 「밋키·마우스」라고 命名한바 이漫畵製作者 왈트·듸스니君이 이것을 알고 洛州商工會商標局에向하야 異議申請을 提出하얏다 듸스니君側의 辯護士는 말하기를 밋키·마우스는 이미一個의 산存在다 그에게는 全世界의팬으로부터 每日無數한편지까지 오고잇다 그의 이름을 마음대로 使用한다는것은 法律上으로도到底히 默認키어렵다 云云。

그런데라듸오會社側에서는 『듸스니氏는『밋키·마우스』란 쥐시리·심포니 等 非現實的인映畵만 맨들고잇스면서밋키가산存在라고말하는것은 옷음다도밋키의 그림을使用하야서는못쓸지모르지마는 이름쯤이야法律에抵觸될까닭이업다 그는意匠商標와 著作權의 區別을모르는것이겟지요』 逆襲하야 商標局에서도 어느편으로 어떠케裁決을할때 어리둥절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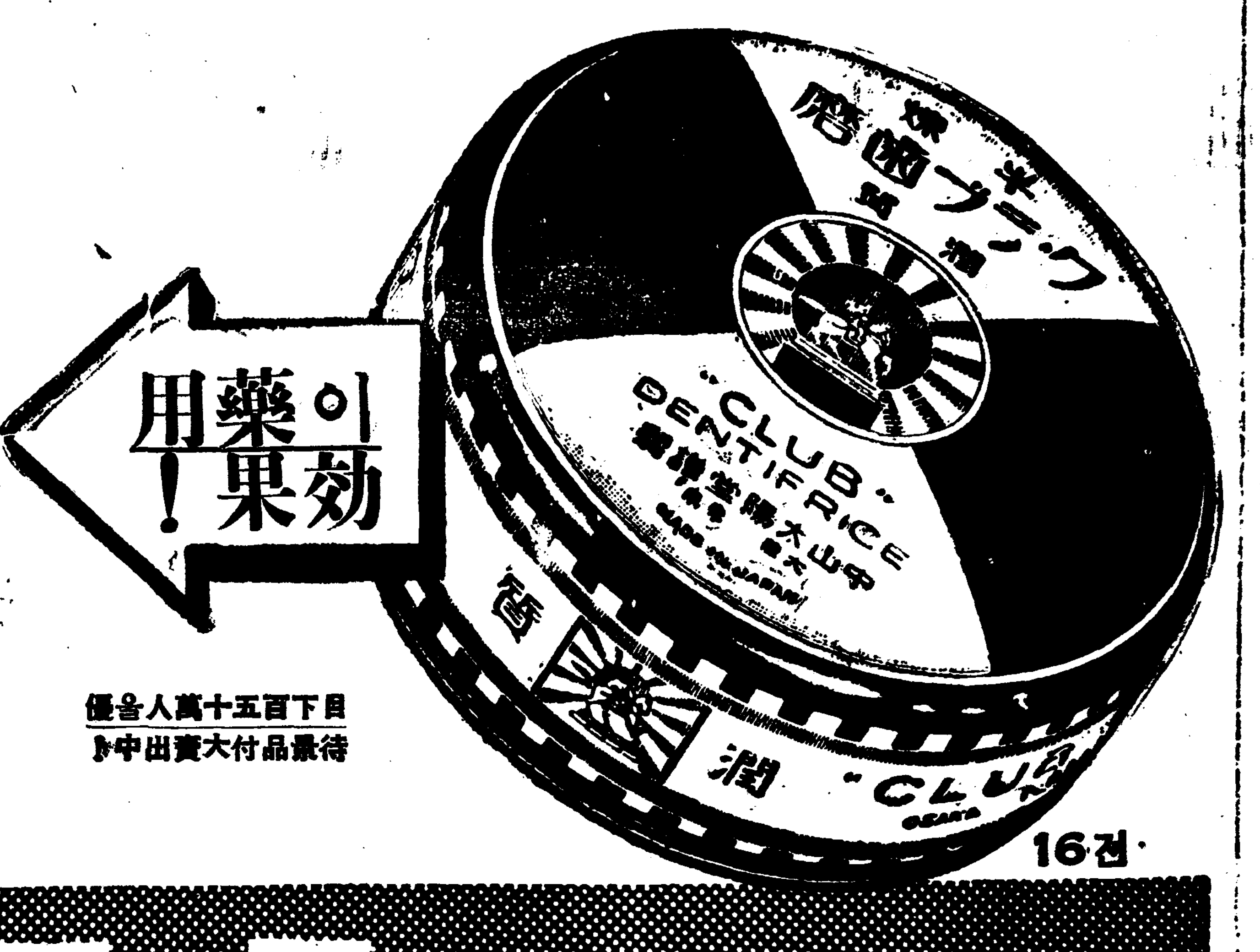
專賣特許의殺菌劑配合!

藥用クラブ齒磨는、口中에繁殖하야 齒牙와內臟의病原因이되는무서운黴菌의侵蝕을防止하는專賣特許의强力殺菌劑「구롤ー카루바구롤ー」를配合하야淸掃藥理作用을하는科學的齒磨입니다。クラブ齒磨를常用하서면、齒牙와齒齦이퍽으나튼튼하야、虫齒가들지아닐뿐아니라、또한齒牙의不潔를除去하고特殊한藥劑의作用으로히고어엽분齒牙가됩니다。

이原理에 (구롤ー카루바구롤ー의構造式)



クラブ齒磨에配合되는『구롤ー카루바구롤ー』은거이無色透明의結晶이며모ー든有害한生物에對한數千倍의稀釋度로서强力한殺菌作用을含有함으로何等의副作用도업슴니다



目下百五十萬人을優待 景品付大賣出中!

16전

一五전 五〇전 [illegible]六전

半煉 潤質 藥用 クラブ齒磨 (구라부)

飢餓線의冷害民에 住居까지撤去令
六月十日의切迫한期限附로
百餘災民은어데로?

【惠山】 함남갑산군혜산읍(甲山惠山鎭) 압록강하천부지내에는 현재 이십여호 백여명농민이무단히 집을짓고 살고잇는데 갑산군에서는 하천부지라는 의미로서 무차별하게철거하라고 엄명하엿든바 이십여호농민부가 수년간령세민들이라 극도로 피폐하고잇서 방향을잃고 먹을것이업서 헤매고잇는 재민들임으로 도저히 다른데로 이전할수업슴으로 그냥살고잇섯는바 이번갑산군에서는 혜산경찰서와 협의하야가지고 오는륙월십일까지는 긔어히 철거하라고 최후의 엄명을하엿다고하며 만일철거하지안흐면 모다 강제로 철거하겟다고하얏다는데 먹을것이업서 헤매이는 리재민들은 이제장차 헐리게되여극도로 근심하는가운데잇다한다

學校設備爲하야 學父兄猛活動

【三湖】 류찬부지를 동하야 보도되엿거니와 함남선교 공립보통학교는 동교성회 간부들의활동과 지방민들의 열렬한 지지하에 명실이 함남의 유일한위관을 보이는 선교사의 주동을 보앗는바 아직내부설비의 불완전을 유감으로 동교학부형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한결과천원의 금액을 학부형으로 부터 회사를 바덧슴으로 제일차로서 내부충실에 착수한다는데 금번내로서 함남유일의 내외정비된 학교를 만들리라고한다

警察官行悖頻頻 在住同胞에脅威
橫車巾移住同胞總蹶起하야
奉天領事館에 殺到陳情

【奉天】 봉천성무순현(撫順縣)에서 만주인경관이 동포량민을 권총으로 쏘아서죽사케하고 이사건 발생한지 제오일만에 또한만주인경관이 동포량민을 향하야권총으로 위협하얏슴으로 당지재주동포백여명이 봉천총령사관에 살도하야 탄원하얏다함은 당시 본보에 수차보도하얏거니와 지난이십오일에는 령군동주민대표 박유호(朴允浩)외 주민전부가서명날인하야 정식진정서를 봉천총령사에 제출하얏는데 진정의 내용은 다음과갓다 지난이월십구일에 철서경찰서 서분소(鐵西警察署西分所)원이 조선사람 김호식(金鎬植)을 향하야 권총을 두발식이나 발사하얏스나 김씨가 도피하야겨우무사하얏고 지난구일에는 역시만주인 유귀삼(劉貴森)이가 김홍의(金洪毅)이란청년을 사살하얏고 이사건이발생한지 제오일만에 동서하(河)형사가권총으로 박봉춘(朴逢春)이란 로인을 쏘라고하는것을군처사람의중재로 겨우 무사한 사실이잇는데 이와가리인민을보생과가리 취급하며 직권을 람용하는 그런경관들은 철서경찰서관할안에는 하로라도 마음놋코 사라갈수가업스니 하로바삐 독직경관을 엄벌하는동시에 감독당국에 경고하야 금후로는 이런불상사가 업도록하야 달라고하얏다

孔道公立普校 學年延長認可

【安城】 안성군공도면 공도공립보통학교(孔道公立普通學校)는작 … 정여원에 달하는터이라한다 학년제로 학년연장신청중이던바 금번인가되엿다는데 이로써전군내에 륙학년제의 보교가 겨우 사교에불과하며 일면일교제는완성되엿스나 아직도 학령에 달하고도 미입학자가 만흠을 일반은 우려중이라한다

悲運에싸이엿든 楊山學院의曙光
終身도록單獨經營하기로
篤志洪炳周氏引受

【安岳】 해마다 향학열이 비등한이때 안악군하에도 학령아동사할미만의 수용으로서 입학난이 격심하얏는데 더욱 무산아동들은 배움의길을 어들수업든 이때 지금으로부터 오마년전인 소화륙년 삼월십오일 안악읍서산리 김두형(金斗亨)군을 비롯하야 사, 오청년동지들끼리 모혀 동정군의 집을 빌려서 사오십명의 무산아동을 모아가지고 시작케되엿것이 양산학원(楊山學院)의 탄생이엇다 다음해에는 서산리동계에서 삼백여원을 드려서 교사삼간과 숙직실을 짓고 규모를 확장하야 일백명에 달하도록 생도도 모아노코 학원인가를 작년봄에 맛햇고 동계에서 일체경영중이든바 문제가 다단하고 이상더 계속할 형편이 못되여 대단히 우려중이어서 극도의 비운그대로 면치 못하게되엿섯는데 서산리 홍병주(洪炳周)(五〇)씨가 양봉오로의 경영전반을 전담하고 교원에게도 적으나마 보수를 주게되는동시에 생도도 더 모집할 작정인데 매년 삼사백원을 예상하고 종신토록 일체경영을 장담하기로 하엿다는데 동홍씨는 과거 안신보교재단과 도최근안악고보 긔성회에도 다대한 회사를햇는 사람마다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寫眞은 洪炳周氏

幼兒를轢殺코 自動車도大破

【平壤】 이십륙일강서읍내(江西 …

李錫元의橫領金額 五萬餘圓을超過
半數는料亭에서消費

【平壤】 일세의 삭채거간으로서 금융업자들에게 신임을 밧든것을 리용하여 거액의금전을 횡령소비한후 만주방면에 고비원주햇다가 체포되여온 평양부내 진향리(鎭香里)리석원(李錫元)(四〇)은 그후평양서사법계리(李)경부의손에서 엄중한 취조를받고잇는터인데 이십칠일까지 판명된 금액만도 오만칠천오백오십원에 달햇고 채권채무자는 약사십여명에 달하여 전부가평양의 일류신사 재산가 명사뿐으로 매일그들유지들의 얼골이사법실에 나타나고잇다

그런데 돈을 준사람이나 손사람전부가 리석원만을 신용하고 주고밧고 하여술뿐이므로 결국은 누구가 피해자일지?가든통미잇는 문제이다

또한 리석원은 이금전의 반분이상을 화류계에서 소비하여 어떠한 료리점에는 유흥비 최고 오천원의 긔록을지엇고 그남어지는주(株)에손을 내여밀엇다가 실패하엿다한다

全州師範開校 六月五日로決定

【全州】 관립전주사범학교는 지난 삼월중 삼백오십명의 신입생까지 모집하고저간 개교를이예분망중이든바 오는륙월오일로 결정되엿다고한다

統馬間臨港鐵道 促進運動具體化
全線期成會聯合會開催決議
—總資金一千萬圓也—

【統營】 통영림항철도부설긔성회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거듭하야 급속도적으로 진행시키기위하야 지난오월이십오일 오후두시 통영읍통제파에서 전선긔성회련합회를 개최하고 산구옹창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가 잇고 의사를 진행하얏는데 결의사항은 전림항철도긔성회의것과가트며 대략 정거장후보지는 본선통영 평도 도산 고성 배둔 마암 진전 진동 구산 마산 등십개소이며 기선으로 고성 상산 상리 정동 사천 추동 개양 등칠개소로 결정이되엿다하며 림항철도출원에잇서서는 전선련합회 의연선 각지대표들이 오는륙월이십오일까지에 결정하야 수속하기로정하고 총운용자금은 일천만원이라한다

事業資金 一千萬圓也

內譯

四百八十萬圓(統馬間建設費)

二百二十萬圓(固開間建設費)

一百萬圓(船舶費)

一百七十萬圓(水面埋立並整地費)

二十萬圓(自動車費)

十萬圓(倉庫費)

軌間 一四、三五一米(廣軌)

間隔 四二、六七二米

單復 單線

가소린車가脫線 女人夫重傷

【羅津】 지난이십오일에 하수공사(下水工事)계일구북선에서 토차(土車)를 끌고달아나던 가소린차가 탈선되어 맛참 공사중에잇던 메인부두사람여 주경성(朱慶成)을중상하얏다는바 각이주일 이상의 치료를 …

解剖로死因判明 妻女殺害事件

【平壤】 …

왓다! 정어리! 沿岸漁民大緊張
西湖津附近에서初漁

【元山】 몇해이와가티 함남주산물의수위인 정어리는 작년가튼면 벌서위용성한여주의 유량이 엇섯슬터인데 금번은 해류의이상으로 열마영야 아직까지 엿자도 비치지안음으로 작년보다 매규모로 포획지를 계고잇는 연안어업자들은 열려하든 … 에 서호진(西湖津)방면으로 부터 원산수산시험장에 도착한정보에의하면 서호진부근 「오오석기(大敷網)」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정어리를 잡엇다는데 서호진소태상장은 한게에 오랑의고가를 부르고잇다한다 어로한대앞아 연안일대의어자는 비로소 긴장한 분위긔에싸혀 큰운어때의내습을 기다리고 기대한다고한다

제철만난延坪島에 漁船數千隻蝟集
벌서石魚漁獲高五十餘萬圓
今後繼續豊獲을豫想

【海州】 연평도(延坪島)의 금년 조기(石首魚)어획상황으로 부터 랭한성적을 보히고잇스다하며 금후로 천후만순조로우면 대풍을 예상한다고한다 어제이십삼일까지의 어획고(漁獲高)를 추산하여보면 오십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하며 모혀든어선의 수는 약일천척운반선(運搬船)매선(買船)이 약일천척에 달한다는바 일대에는 방금크게 활황을 이루고잇다한다

鏡城教育界喜報
躍進!獨津清醒學院
私立學校로昇格認可
刻苦青年의業績顯知

【鏡城】 …

過冬의酷寒餘波 廣浦名物"蛤"凶獲
이것으로唯一의生路를삼든 千餘窮民大打擊

【定平】 작년겨울의 혹한이비저준 비참상!정평의 광포(廣浦) 까마조개가 산출되는 명산지인데 이까마조개가 작년도의모진추위로 인하야 어려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평군부내면(定平郡府內面)남흥 홍성 호남 경흥 송흥(南興、興城、湖南、慶興、松興)등의오개리와 선덕면(宣德面)일부의천여세궁민은 여름한철은 이조개로서 생계를 간신히이어오든바 전그리유로서 이들은거의 채취할것이업서 그들의생활상중대영향이 미치게 되엿다고한다

星谷嶺山谷에다 出生直後胎兒生埋
警察은犯人을嚴探

【慶興】 지난이십륙일 오후네시반경에 …

京元線「高山驛」 驛名改稱陳情 「新高山驛」으로

【元山】 민요로 세상에 널리알려진 신고산(新高山)은 근자에 번잡한 물화의집산과 도시발전으로 말미암아 호수로 천여호 인구로 근만을 포옹한 도시로 경원선중 제삼위에 속하는 우수한곳인데 신고산의 인후의작용을 가지고잇는 역명이 불명과 상위되어 이로말미암은 제종불상사가 종종발생하여 일반의 불편과 손해가 또한 막대하여 당지시민들은지금역명 「고산」(高山)을 고래의 지방명인 「신고산」(新高山)으로 개칭하여 달나고 리홍긔(李鴻基)씨외오백여명 련서로지난이십륙일에 철도국장 기타관계각방면에진정서와리유서를 제출하는동시에 또한 구체적운동을 일으키고저 역명개칭긔성회를 조직하엿다는데 그리유의내용은대개다음과갓다고한다

一、地方名新高山과 驛名高山은 歷史的으로 特別히 緣故가업는것

二、新高山內各官衙學校其他諸團體의 頭詞는 모다新高山인데 驛名이 獨高山이라는것

三、諸産物及民謠「新高山打鈴」의로 外方에 널리알리어진것

四、汽車旅客이 新高山을 目的으로가다가 驛名의 矛盾으로 乘越하는것

五、新高山과 高山驛附近里가 相當할企業想하고 商品去來에費用을 添加하는것(例新北靑과 北靑等)

六、鐵道荷物郵便物또는 銀行金組手形等이 全北高山又는 定平高山으로誤送되는것

七、高山驛은 京元線高山驛外에 日本內地에도 高山驛이잇는것

赴戰水電 放水豫防工事

【咸興】 신흥군서고천면(新興郡西古川面)과 신흥읍(新興邑)을 통하는 신흥도로는 당지에 잇서서는 유일한 노로인데 여름부터 부전강수전제사호발전소(赴戰江水電)의 방수(放水)로 인하야 도로중간이 전부 차단되엇슬뿐아니라 부근전답수십정보까지 침수되여 주민들의 원성이 극히 노픈바 이번동회사에서는 전고 도로에 완전한 교량을 가설하는동시 방수피해예방공사까지 시행하기로 되여 그의준공을한남들은모과에위락하여왓다

平壤道立醫院에出現 白血球滅減病者
世界的不治難病

【平壤】 이십오일 평양도립의원에는 의학상 긔괴한 환자가나타낫다 환자는 금년이십세되는 조선인남자로 병명은 백혈구멸감증(白血球滅減症)이라고하여조선서는 처음발견된 환자이다 이병은 백혈구가 점점업서저사람을 죽게하는 세상에 드문병으로 백혈병(白血病)과가티 세계의 의학상에서 큰의문을 면치못하는 긔괴한것이다

병의 원인은 편도선(扁桃腺)이셕고 다음에는 악화(惡化)된것이 썩는것으로 세계의학계에서 풀수업는 난병으로 되여잇는것인데 과거십개년간 경일본에서도 이십여명의 환자가 발견되엿슬뿐인 불치의난병이라한다

順川郡富潤里에 鍾乳洞새로發見
窟의構造가奇奇妙妙하야
方今探勝客으로混雜

【順川】 평남순천군 북창면부윤리(順川郡北倉面富潤里)산에는요사이 평장한 종유동 이 발견되여 매일모여오는 람승객으로 비상한 인긔를 끌고 잇다。 동혈(洞穴)에 내부를 잠깐소개하면 길이는 조명기타의 관계로 그거리를 헤아릴수업고 구조는 미려광활하야 천정이수십자 내지 수백 이상되는곳도잇고、그암벽엔 회백색(灰白色)의 종유석이 긔긔묘묘한 현상으로 되려한 선을그리고잇다

그중에도 못가(?)(굴안에못이잇다) 반석우에 그것도 종유석으로된 벌판(?)이잇는데 반석은 전부 논배미와가티 구분되여 흡히 사오촌(四、五、寸)에 논드렁(?)으로 구획되여잇고 군데군데그역시 종유석으로된 곡물나 자연계의 조화에 놀라지안흘수업다고한다

眞寶公立普校 開校記念祝賀

【眞寶】 경북청송군진보공립보통학교 개교이십오주년축하식은 지난오월이십사일 오전열시부터 시작하여 래빈과 본교동창회원학부형등수천명의참석아래에 미증유의큰모임을일우엇다고한다

平壤에結核 豫防展覽會

【平壤】 평안남도 결핵예방협회 평양부 공동주최인 결핵예방전람회는 이십륙일부터 상업구락 양공회당에서개최되엿다 전람회장안에는 도립의원 평양의전(平醫專) 평양 약업조합 긔성의사회(箕城醫師會)등의 후원으로 오백여점의출품하엿고 또이밖게강연회(講演會)활동사진(活動寫眞) 라지오、포스터ㅣ선전삐라、팜프렛트무료건강진단 당겸사선전탑(宣傳塔)을 발행또는 설치하는외에 자동차선전등으로 일반도민의 각성과 결핵의무서운것을 알리기로되엿다

紀念碑除幕式
牟義理宣教師의

【平壤】 중화서련합도제직회(中和西聯合都諸職會)에서는 모의리(牟義理)선교사의 긔념비를 중화군해압면삼성리교회당(中和郡海鴨面三姓里教會堂)구내에 세우기로되여 그제막식을 륙월륙일 정오에동지에서 거행키로되엿다 모의리씨는 현재 숭실전문학교장(崇專校長)으로 삼성리교회당 건축과 기타선교사업내지 자선사업으로 자긔의사재를 전부제공햇고 자긔의 자동차까지팔어 조선인교우를 구제한 갸륵한인격의 소유자이다

演劇求景말린다고 少年飮毒自殺

【江景】 연극구경 하지말라고하얏다고 음독자살한 소년——강경금강운수주식회사(錦江運輸會社)에서 표파는일을 보고잇든엄인옥(嚴仁玉)(二〇)은 지난이십일일 오후한시경 자긔집에서 다량의칼모친을 마시고 자살을 하얏다 그가 그러케 자살한원인을 알아보면 선긔소변은 본래 연극보는것이 조와서 자조 연극을 구경갓다는데 이것을안 그부모는 조혼말로 그런것을자조볼필요가업다고 타일넛든이아 말을듣든직후 그와가티 자살을 하얏다고한다。

建築元山의活況
煉瓦注文의輻湊로因하야
各製瓦工場의大忙殺

【元山】 최근원산은 인구의격증에따라 주택난을 초치하여 도처에 가옥신축이 왕성하며 또는으로회사등의 수속 신축등이 잇서서 사실상벽와라인 건축열을 낫코잇는데 원산부소 제와공장(製瓦工場)의 연와수요상황을보면 요지음 주문이 들어오는것이 실로 이백삼십만매에달한다는데 작년도 총매상수 백사십만매보다 훨신이만매를 초과하고 잇는형편을 동공장의일생산최고량은 겨우이십만매에 불과함으로 그주문을처치난에 두통중인바 지금도 속속주문이 드러오는것을 밧지못한다고하는데 다른 민간제와공장에도 이러한 현상을 배저내고잇서서 건축원산의 활황을 리서하고잇는것이라고한다

地方人事

△李庸河氏(東一銀行洪城支店支配人代理) 洪川出張所新任人事次 本報洪川支局來訪

國勢券배껴먹는 장사군嚴取締

【平壤】 사월초순경부터 평양부내 각전차나 『뻐스』정류장에서는 전차와『뻐스』의회수권(回數券)을 할인식팔고잇는 장사군이 생기어 이장사가 리익이만타는 소문은 삽시간에퍼저서 어린아장 장사들이 각정류장에 진을치고 전차표사시요 『뻐스』표사시요하면서 손님들을가하고잇섯스나 의연히 이장사군은 증가하고잇슴으로 평양부전차과에서는 아모리표지(表紙)가잇는 회수권은 무효로한사를 가지고잇다

그러나 아직도 한장사군때문에 부영전차과에서 당하는손해는적 …

臨益水組移住民訪問記
바든바移轉費는 舊債整理에充當
바랏든農耕은半收穫不過……
一時는地方民의反目도잇서

黃登에서 白安基

오천여정보의 동진(東津)수리를 가진전북 황등리에잇는오교저수지(黃登貯水池)가 수량부족과지미가 양호하다는 구실로 림익수리조합(臨益水利組合)에서는 소화팔년에 심원하원의공사비로 저수지를 고산 경천리(高山 川)로 이전케되엿스나 일시에 안주지를찾게되던 경천리저수지안 팔개동리 이백여호천여명은 할수업시 작년봄에 황등으로도 개답(開畓)을갓고 …

전북림익수리조합저수지가 관개의편리와산미증식을 전제로하야 고산경천리로 옴기게되엿다 그래서 저수지자리틀잡은 그속에 거주자이백호천여명은 자연이주케되엿스니 뜻밧게 고향을 일케된 그들의 심사야 말할수도 업스려니와 이전비 문제와 토지가옥등의 매매가격과 거주지문제로 조합대주민간에 이면이나 끄러왓섯다한다 소화팔년오월일에 거주민대회를 개최하고 금후 사활문제를 결의하든차에 마침협회하여든 전북도당국자와 수리조합측 간부들이 『여러분이살고잇든 경천리가 저수지로된다하면 현재잇는 황등이 저수지가 업서질터이니 그곳에가서 경작(耕作)하는것이조타고하면』이주키를 권유함으로 할수업시 황등으로 이주케되엿다 그러나 작년부터 경작을 시작하엿스나 그들은 적당한 가격을 바다 엿스나 그들은 적비한 땅을 …

重要産業統制法

積極性缺陷이 顯著

⑦……經濟關係法解說

重要産業統制法은 昭和六年에 五個年의 期限으로 施行된 것으로 今年八月十日로써 滿期가 되다 그럼으로 지금까지의 運用에 依하야 發見한 缺陷을 改正하야 다시 五個年의 延長을 圖한것이다 立案當時의 主旨는 主로 産業의 保護에 重點을 두엇다 卽當時의 産業界는 生産過剩의 弊로 極度의 不況에 빠저 매우 産業不安의 雰氣가 濃厚케되엇슴으로 政府는 産業의 無統制를 抑止하야 이에 規律統制를 하야서 그 安定을 圖하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助成이 그 目的이엇다 그뒤 金輸出禁止에 伴하야 産業界의 情勢가 一變하고 産業의 安定確立의 機會는 大體 達成하엿스나 反面에 대(對)의 助成結果로 그 弊害가 나타나 消費大衆을 괴롭게하는 現象이 생겻다 이에 對하야 本法의 規定한 公益規定은 매우 消極的이며 具體的을 다하지못하야 消費者保護의 目的을 다하지못함으로 改正法은 消費者保護에 重點을 두고 그 缺陷을 改正한것이다。

×

改正法의 主要點에 對하야 보면 첫재 舊法에 依하면 統制協定은 加盟者 三分一以上의 申請이 잇슬 境遇에는 附加의 義務가 잇고 이統制協定은 同業者 三分二以上의 申請이 잇슬 境遇에는 主務大臣은 統制命令을 할수잇게 되엇스며 加盟을 强制를 하엿스나 改正法은 生産者의 外에 販賣業者 等 統制範圍를 擴大하엿다。 둘재 統制協定에 依하야 許可한 境遇 그 生産業에 許可制로하고 統制協定으로 共同販賣等을 하는 境遇에 「需要의 圓滑」을 새로히 取締키로하엿다 넷재 公益規定을 生産數量及 販賣價格이 「消費者의 圓滑한 供給을 妨害하고 또는 不當히 價格을 騰貴케 하거나 或은 低落을 防止」한 境遇와 多少 具體的으로 規定한 從來의 「公益에 反한다」「公正한 利益을 害한다」는 曖昧한 點을 改正하엿다。 過去五個年間의 實驗에 依하야

統制委員會의 統制가 不如意할 境遇 外에 從來와 가티 統制命令을 發할수가 잇다 從來와 가티 統制命令을 發하게 되엇스며 加盟强制하라는 …

×

이改正法에 依하야 어느程度에 …

그러고 最近의 産業界의 情勢에 依하야 統制의 精神이 업다는것이다 卽政府는 …

信用經濟破壞者

嚴重制裁를 協議

取引 停止되면 名義變更해도

絶對로二年間不許

京城府內 銀行間에서는 萬一 不渡手形을내어 取引停止處分을받은者에게 對하야서는 滿二年間은 銀行取引을 못하도록 協定되어잇는데 이制裁에 對하야個人不渡發行者는 그營業을 會社組織으로 變更하야 取引을開始하는者가 만어서 制裁規程은 實效가업시 空文이되니 銀行으로부터 不渡手形發行者의 制裁를 嚴重히 할것이라는 世論이强化되어 制裁期間內는 如何한名義로라도 絶對로銀行取引을 못하도록 할것이라는것이 金融界의큰問題가되어잇는바 信用經濟를 破壞하는如斯한 不渡手形發行者의 銀行取引再開始를 못하도록 目下銀行間에서 協議中이라한다

一、米穀統制法中改正法律(同上)
一、正租共同貯藏助成法(同上)
一、昭和九年法律第四十號中改正法律(同上)
一、重要輸出品取締法中 改正法律(同上)
一、輸出絹織物取締法中 改正法律(同上)
一、輸出組合法中改正法律(同上)

米穀自治管理法

朝鮮은府令實施

▲…矢島農林局長歸來談

【釜山電話】政府委員으로議會出席中의 總督府農林局長 矢島杉造氏는 二十八日朝 關釜連絡船으로 釜山에上陸하야 同朝發特急으로 歸京하엿는데 同時의 米穀自治管理案에對하야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

米穀自治管理案은 政府의 努力에依하야 畢竟이번 議會를 通過하엿슴으로 政府는 勅令으로써 그實施에關한 具體的對策을 公布키로되엇고 따러서 總督府에서도 右勅令을 骨子로 府令으로써 日本內地의것과가튼 自治管理를 實施키로되엿다 內外地의 過剩米自治管理比率은 日本內地三十五에對하야 外地六十五를 外地間은 朝鮮四十三 臺灣 三十二이다 比率決定의 基礎에 對하야는 島田 農相이 議會에서 說明한바와 가튼 것으로 大體管外移出數量에서 算出한 것이며 現在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數量은 年七、八百萬石으로 管理案實施할때는 이것은 五百萬石으로될것이다 管理案實施에對하야 日本內地에서는 産業組合이 普及發達한 때문에 매우 便利하나 朝鮮에서는 그것이 업슴으로 統制組合을 미리組織하고 이것을 通하야 道農會 郡農會에서 代行케할 豫定이다 統制의 方法은 第一次 第二次로난 와서 行할터인데 第一次統制는 收穫豫想에 基한生産地의 生産者自治管理 第二次統制는 그結果를 基調로 所謂集散地의 米穀業者의 自治管理를할 것이다

配給組合

硫安安定

買向을協定

【東京電話商通】硫安配給組合은 硫安의最需要期에 當面하야 市價의安定을 求함은 會社及 消費者 雙方을 爲하야 必要하다고 해서 二十七日緊急主事會를 열고 三圓三十錢以下의 實物을 買拾하고 또는

蠶共販正量取引

南六道一齊實施

正確絲量取引可能

蠶의 共同販賣正量取引은 近年 蠶業技術進步에 伴하야 優良蠶生産에 依하야 養蠶業者로부터 要望되고 이미 京畿 全南 全北等地에서 實施되어 效果的成績인데 十一年度 春蠶에는 全北이 從前의 檢定設備를 擴充하는 外에 忠北 忠南 慶北의 各道에서도 正量取引을 實行키로 決定하야 中部 南部朝鮮의 主要養蠶六道는 正量取引의 普及을 보게되엇다 正量取引은 通例共販蠶이 郡技手의 査定으로 等級이 決定되고 그絲量도 等級에 依한 絲量이 正當하게 對하야 檢定에 依하야 正確한 絲量을 내어가지고 取引하는것으로 特等은 絲量 十二匁이나 昨年全南北과如함은 十三匁以上의것이만코 從하야 正量取引으로 養蠶家는 正確한 絲量의 取引이 可能케되엇다한다

朝鮮商議總會

六月十六日開催

朝鮮商工會議所第五回定期總會는 六月十六日 京城商議內에서열기로決定하엿스며 十五日은常議員會를열고 十七日은 日滿實業協會朝鮮支部總會를 열豫定인데 總會의協議事項은 다음과 갓다고

一、議案決算의承認
一、副會頭의補選
一、常議全部의改選
一、各商議提案의審議

▲淸津商議提案 關北鐵道의 敷設을 促進하야 速히 茂山鐵鑛을 開發하야 그製鍊所를 北朝鮮에 設置하기를 要望할

京城商議工業部

京城商工會議所 工業部에서는今月二十九日午後三時부터 同所會議室에서 左記의件에 對하야部員會를 開催하기로되엇다

一、電力使用調査會開催의件
一、工業懇談指導講習會開催의件

自行貸金利下

殖銀、東拓에서

七月一日로부터 預金部低資利下에伴하야 殖銀、東拓의 右折半償付에對한 利下에關하야 總督府間에 折衝中이더니 大體兩社와도 七分가량으로되엇고 自己資金貸出率를 五厘引下로 決定하엿다 따러서 利稍節約은 低資로 五十萬圓 自己資金四十萬圓 合計九十萬圓에 達케될것이라고한다

未包含도 七十五圓以下는 斷然買向할을 協定하엿다

期、正米、正租

米價跳躍飛騰

日本內地의低溫과

拂下안할모양보고

昨日上放의 期米는東京 大阪地方의 低溫不順 北陸地方의 苗板不良等 直接動因으로하고 米穀自治管理案實施等의 環境에對하야 二十八日 積極的騰勢로 鉞어 東京先限은 三十三圓六十九錢大阪三十三圓五十六錢 仁川先限三十一圓三十九錢으로 月初低價에서 一圓一錢高이엇스며 朝鮮各地消費도 群山先限三十一圓四十七錢 木浦先限三十一圓九十錢 釜山三十錢大邱先限三十圓九十錢 釜山三十一圓二十錢에 漲高이고 九仁三等三十圓七十五錢으로 昨日보다 一圓五十五錢暴騰 數少三等三十圓九十五錢 九木三等三十一圓丁 角ク三等 三十圓四十錢에 올랏스며 仁川正租(義坊主)一等은 一斤九錢二厘로暴騰인바 仁川期米先限三十一圓三十九錢은 昭和二年以來의 高價이엇다

米自管法

勅令公布

朝鮮事業公債도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의 協贊을 經由한米穀自治管理法案外九件은 上奏勅裁可後 二十八日公布되엇다

一、朝鮮事業公債法中 改正法律(公布日로부터施行)
一、農村負債整理組合法中 改正法律(同上)
一、米穀自治管理法(施行期日은勅令으로써定함)

昨年旱魃地方은

今年도用水不足

農林局이對策指導

水稻移秧期를 압두고 旱魃念慮가 다시 各地에 생겨 今年은 全朝鮮的으로보아 多少 雨量이 만히왓스나 昨年 旱魃이엇든 忠南北、全南北及 平南의 一部는 依然旱魃이 豫想되야 右地方貯水池가 甚한곳은 一四乃至二一%의貯水에 不過하고 五〇%未滿이 그半數以上에 達함으로 農林局에서는 目下 右各地方에 技術官을 派遣하야 水利組合의 實際指導에잇서서 共同苗板을 獎勵하야 貯水의 節約에 힘쓰는 同時에 旱魃對策으로의 移秧方法을 實地로 硏究指導하는터이라고 한다

南六道各電氣

對等條件의合倂

南鮮六道의 電力統制는 이미 各社의 合同交涉工作이 行하야 相當히 進捗되엇는데 이에 包含된 電氣會社는 六會社로서 資本金으로 보아도 電力統制中最大의것이다 右合同에 對해서는 大體各社共히 實際表로 잇는데 六月中에 各社代表者의 最後的會合을 行하고 目下準備中의 資産評價에 基하야 合倂比率을 決定하고 設立準備를 進키로되엇다 大體各社共히 一割配當을 行하고잇는 點으로 株의 比率은 對等이될것이며 各社는 合倂以前의

釜山瓦電 六〇〇〇 一三〇〇
木浦電氣 一〇〇〇 六三五
大興電氣 七〇〇〇 二八〇〇
大田電氣 一〇〇〇 一〇〇〇
南朝鮮電氣 二二五〇 一三一八七
天安電氣 一八〇〇 八〇〇
(單位千圓) 公稱 拂込

에未拂込을徵收키로 되엇는데六社의公稱資本金合計는 一千六百七十萬圓에 達함으로 되리라고보이는바 圓의大會社로 되리라고 包含될六社의 資本金은如左하다

對濠制裁支持

船會社側에서도

【東京電話同盟】對濠報復策으로서 日本羊毛工業會의 濠毛輸入制限이 決定되어어에伴하야 重大關係를가진 海運界의 影響이 注目되던바 船會社側에서는 現在濠洲同盟을 組織하고잇는 郵船、商船、日濠郵船과 EA各社에서는 모다 羊毛輸入季節에는 交互로 月一回乃至二回의 臨時船을 出하고잇는데 濠毛輸入制限을 斷行하얏다드래도 三分一程度로는 어떠한時에는 全部廢止하면 定期航路維持에 何等 支障이업다하야 對濠制裁에 完全히 步調를 一致하야 工業會支持의 態度를取코잇다 한다

非投機時代!

東、新勢、事業株强堅인바 東新은 도업는사람이 投機的으로買할으로 反動低가오나 事業株는 도업는사람은팔고富者가사니下値는오르다。投機는時代에不適한일로 東新도役機的으로賣하다면反動高가잇겟지만 現在는 實塊玉보다實塊玉이만으니 反動高를 招하라면 먼저實込되어야할것이라는말이잇다

是正은 去十年度 價格實渡가四千二百萬圓으로 比前年度 一割增이라고

○ 好景氣때문인가 朝鮮人口 一人當 消費高 年二圓強 一人當 二圓은 큰돈이아닐지 모르나 四千二百萬圓이란돈은 決코 적지안은 돈이것도

○ 原因은 日本內地低溫 때문이라고 너무 미리 悲觀할것도 업겟지

○ 米價는 今日도 天井不知의狂騰

重大問題檢討

日本品排擊은 全般化하기는터로 通商擁護法發動만 지고는 實로悲觀이 解消되지안흘것으로 事實로今後어떠한 打擊이 닥처올것을 重視하여야할일이오 滿期이지만 例의統制와 增稅도 果然어떠케 決定될것인지를 透徹하여야할것인 으로 比等諸重大問題가 市勢를 抑壓할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라고 材料로서 民實時代를 主張하는사람이잇서 東新도 配當落의 實增量 바라기보다는 或은 百三十圓臺에 到底에 入할것이지 모르며 關係割後 징말大하고 回復될것이지 往目된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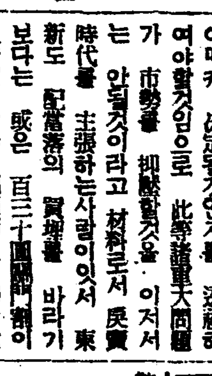
(賣物前場取引)

▲日本 三三〇▲大島製鋼 一三三▲北樺太石油新 一六五▲昭和人絹 二〇〇▲電化學新 一四六▲日本製鐵 一六五▲新興人絹 一三〇 (取引高一六〇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米貨는 採算的의 買物로 六分半二圓高 五分半一圓高로 買進되고 內債도同

市場六感



株……今前場當地東新은配當落은 百三十一圓臺이엇는데東京은百三十二、三圓臺에서依然保合而已◆增稅 統制經濟가橫在하고 各國의 日本品防遏이甚하니 올二기힘드는것은 當然之事◆百四十圓臺를 바라는目前强氣論이엇지안흔모양이나弱氣와 그보다 먼저百十九圓三十錢을 下廻하는 底入이잇서야할것이라고 固執◆當地組는 諸株를通하야 大下長◆代引도 東新三千七百八十枚日産二千三百六十枚의 多數◆어떠구로도歡息日東新으로돈을버리하기 어려울다고 利喰이해도얼마안되고 빗두루마지면한꺼번에 大損이니까 繼株中制低株를 物色買하고잇다고一理잇는말

米……昨後場부터 各地市勢는 又一層硬强하야 二、三十丁의 反撥을示한다 그原因은 政府米拂下를 하지안는다는것을 强材視한모양 ▲勿論政府로서 本年米作의豊凶을 알지못하는今日에 無暇히 拂下하지못할것도事實 ▲昨今의天候로보아서는 日本內地及 朝鮮을不問하고 參作又는苗板의發育이 不良하狀態이오 딸아서 農家의持米는 더욱深藏될모양 ▲民間在米의事情이 如斯하고 또苗의發育이 조치못하니 米價의反高는 大勢의自然

株式 保合

動意殆無

商況【卄八日】

前場保合 今前場은 東新百三十一圓十錢(配當落) 日産六十九圓八十錢(配當落)으로 日魯六十六圓三十錢(配當落)으로 順當이고 朝新 二十六圓五十錢 鐘新百五十一圓八十錢 大新 七十四圓十錢에 各保付後 保合裡에前場을 終하얏다

▲東新 三二〇 三〇 一〇 一〇 一

後場同調 後場은 亦是同調로 閑散이엇스니 東新百三十一圓十錢에同價 日産六十九圓三十錢에 少落 大新七十四圓丁에保合 朝新二十六圓三十錢 朝取六十七圓四十錢에各大引

配當落의諸株

當地短期取引中 今前場부터 配當落實買인株는 如左하다

▲東新 (年七朱六厘配)拂込金 三十七圓五十錢에 對하야配當金 一圓四十二錢五厘인데 前寄는 百三十一圓十錢으로 昨後引보다 一圓三十錢下前引으로 順當

▲日産(年一割配)拂込金五十圓에對하야 配當金二圓五十錢인데 前寄는 六十九圓八十錢으로 昨後引보다 二圓四十錢下 朝引으로 順當

▲日魯(年一割配)拂込金五十圓에對하야 配當金 二圓五十錢인데 前寄는 六十六圓三十錢으로 昨後引보다 二圓七十錢下朝引으로 亦是順當

跛行商情繼續

重工業方面은 低金利基準의物色買가 潛在해서 意外底堅이나 纖維工業株는 海外排斥으로 前途悲觀人氣濃厚하야 事業運不可避로 不動를 못하며 東新가

政府米拂下는

當分實現難!

拂近 日本內地는 民間의 糧米不足으로 政府의所有、昭和八年産米의 拂下申請이 遝至하는光景임을보아 來六月上旬頃에는 拂下가 잇슬것으로 大體豫期하엿든바이나 그러나 朝鮮은 成北의 降雪과 慶北의 霜害가잇슬뿐아니라 冷氣가 依然繼續되므로 麥作에非常한 打擊을 與하고日本內地의 東北地方은 一時雪害又는 昨冬의 酷寒으로 麥苗의 發育이不良하야 벌서부터凶作의 悲觀을 보하게됨으로此現象을안 政府로서는 미리拂

期米 新高價로 躍騰

前後場躍騰 昨後場阪地三十三圓三十三錢止와 共히三十圓二十錢에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三十三圓四十二錢인 九丁高를 擲하고 三十圓三十五錢인 十五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漸新高調로 五十六錢까지 上放하엿다가 五十一錢에 止場하얏스나 三十九錢까지 奔騰하엿다가 三十三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一息 後場은 三十一圓二十五錢에 八丁低로 利喰押始한後三十錢에 再伸이고 五節二十九錢으로 二十七錢에 止場하다

大阪三品後場例休

大阪綿絲、棉花、人絹三市場은當限受渡로 今後場부터 明前場共히 例休이다

甲五分利 一〇〇、九〇
一回四分利 一〇二、八五
二回四分利 一〇二、九〇
佛貨四分利 一九八、二〇

小高이엇다 散이나마

株 光皿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東益商事店 金益證券株式會社 電話本局②五一八一、六番

今日財界 (卄八日)

◆米 (單位錢)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一三九 高二五
大阪期米 先限 三三五六 高四三
三等玄米 (京城) 一石 三〇二五 高五〇
正租(仁川)一等 一斤 九二 高二

◆市中金價 一匁 (單位錢)
賣 十二圓六十三錢 一匁 十二圓六十八錢
買 十二圓六十三錢 大四錢四厘

◆株 (單位圓) 今日 比前日
朝取 新 六七四〇 高一〇
東新 新 一三一一〇 低一〇
日産 六九三〇 低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綿絲 ………
現物 ………
無 ………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作付는遲延코

部分的旱魃?

昨今의 氣候는 依然 冷氣가繼續되어 日氣가 冷하야 作物의 打擊이 적지안흘모양인데 果然今後의 天候가 어떠할가함에 對하야 氣象界의 消息에依하면 左記와 갓다

今年은 昨冬에以來의 寒冷에 依하야 相當한 旱魃이잇슬모양이다卽 시베리아의 冷氣壓이 不斷的으로 襲來하야 딸아서 自然作付가 遲延되고 또部分的 旱魃 高溫 梅雨性降雨가 例年에보지못하든 異常한天候를 豫想할이라하며 一說에는 今夏는 非常한 高溫으로 旱魃念慮가 多할이라고한다 그럼으로 今春來의 雨量이 充分하야 植付에 支障은 업슬듯하나 今後氣象의 變遷이 多할것을 豫想하며 植付後의 招作에 異常한打擊을 與하기가 十常八九일것 갓다고 云云

下落 하엿다가는 今後需米價를 防止할 可能性이 업슴으로 拂下를 하지안흘모양이라하고 그리고 當分間 政府에서 米十萬石의 拂下를한다 假定하더라도 此는 마치 重患者에게 「감루」注射를 한것과如히 一時的效果에 止할뿐으로 結局은「죽어가는자리」와 如히 되게되면 到底拂下는 問題되지는안는다고 云云某說如何?

各地當限受渡高

價格 石數
大阪 三三五〇 一四一〇〇
東京 三三五〇 四四〇〇
神戶 三三一〇 二六〇〇
大邱 三〇二〇 一四五〇〇
釜山 三〇五〇 一〇〇〇
名古屋 三三一〇 二一〇〇
京都 三三九〇 九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
中限 …
先限 …

堂島當限渡濟納會

【大阪電話】 … 本日納會는 … 全滿的의 低調로 … 新高値에 … 前引은 …

各地正米

買方=… 利喰 …

京城大上放

期米暴騰을 … 一氣로 五十五錢大上放을 演하야다 … 九仁三等三十圓七十五錢 四等三十圓四十五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丁

仁川爆發高

示念의 品貴深刻化와 産地의 去益滿騰化로 人氣는不息인 一方定期의 暴騰을 보고 一般買物이 往入되어 期米採算側의 繼續買相俟하야 市勢는 一暴로 五十五錢暴騰高를 演하야 ㊀三等三十圓七十五錢 四等三十圓四十五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七十五錢

釜山續騰

産地硬化로 依然市場賣物이 高價를 呼하야 唱은 三十錢續騰이오 此間移出側과 地場小口의 商品買로 市況은 活況을呈하얏다 ㊁三等三十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七十八錢

大邱暴騰

産地賣物濟과 天候不順으로 地味堅調인데다가 期米의 躍進高에 刺戟되어 一擧로 四十五錢暴騰을 演하얏다 ㊁三等三十圓十五錢 四等二十九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五錢

群山躍進

定期의 去益好勢를 移하야 日本內地側의 注文이 頻繁하고 地場의 假需要 擡頭로 唱은 四十錢 躍進이엇스나 人氣만큼 實物이 出치안흠으로 進捗치안엇다◆ ㊁三等三十圓九十五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

木浦昂進

各地의 一齊高放을 쫏고 氣配 三十錢 昂進하얏고 一般買方은 高價買壓 氣味이나 日本內地로부터의 注文은 相當히 旺盛하얏다 ㊁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

金 · 銀 · 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2)三三一六番 振替京城五五四番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先方負擔}

玉蜀黍購入
五圓五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前 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平北寧邊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함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市況 (卄八日)

◆海外經濟◆ 二十七日
◆朝鮮銀行券◆ 二十七日
◆日本銀行券◆ 二十七日
◆東京金利◆
◆京城手形交換高◆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純金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卄八日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絲布市勢◆ 卄八日
◆綿油沖價◆
◆棉粕沖價◆
◆피카코期米◆ 二十七日
◆日本產業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棉絲◆ 卄八日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二十七日

◆朝取期米◆ 卄八日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限定代引日步◆
◆朝取短期◆ 卄八日
◆大阪長期◆